

정책연구 2005-9

제주장수마을의 향후 발전방향과 과제

2005. 12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진

연구책임 : 고 승 한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원)

공동연구 : 고 보 선 (제주산업정보대학 교수)

발 간 사

우리나라는 지난 40년 동안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를 경험해 오는 과정에서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보여 왔다. 특히 우리사회는 고령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저출산 현상에 대하여 장·단기 정책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고령사회에 대비해 나가야할 시점에 있다.

참여정부는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대통령 직속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기구를 두어 다양한 정책적 관심 및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고령사회가 새로운 사회·국가적 문제 발생을 예고하고 있지만 장수하는 사회는 반드시 부정적 문제만 가지고 있지는 않다.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오래 살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고령사회 혹은 장수사회는 인간의 행복을 구현하는 진원지이기도 하다.

특히 제주지역이 전국적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 가운데 8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향후 장수노인층이 급격히 늘어 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제주지역을 ‘장수의 섬’으로 불릴 만큼 장수하는 노인들이 많다. 제주지역이 향후 장수사회로 더욱 발전할 잠재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제주지역이 ‘장수의 섬’ 혹은 ‘장수사회’로 발전하려면 이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그런 맥락에서 제주지역의 장수마을에 대한 다양한 문제들을 고찰하여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일은 아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가 향후 제주지역의 장수마을 발전을 가져오는데 시금석이 되기를 바란다.

2005년 12월

제주발전연구원장 고 부 언

목 차

I. 연구의 개요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4
3. 연구의 내용 및 범위	4
4. 연구방법	4
5. 연구의 기대효과	5
II. 국내·외 장수마을의 사회·문화적 특성	6
1. 전남 순창군 장수마을의 사례분석	6
2. 오키나와 장수마을의 사례분석	8
III. 제주 장수마을의 사회·문화적 특성	12
1. 장수마을 형성과 역사적 발전	12
2. 장수마을의 자연적 환경	18
3. 장수마을의 경제적 환경	21
4. 장수마을의 사회·문화적 환경	23
III. 조사결과 및 해석	29
1. 조사 개요	29
2. 조사표본의 지역분포	30
3.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30
4. 장수마을의 자연 환경	32
5. 장수마을의 경제적 환경	34
6. 장수마을의 사회적 환경	38
7. 장수마을의 문화적 환경	41
8. 장수마을 보존	44

IV. 연구결과 요약 및 정책적 제언	54
1. 연구결과 요약	54
2. 정책적 제언	60
□ 참고 문헌	64
□ 부 록(설문조사표)	65

<표 목 차>

<표 Ⅲ-1> 조사표본의 지역분포	30
<표 Ⅲ-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31
<표 Ⅲ-3> 장수 비결	32
<표 Ⅲ-4> 장수 음식	33
<표 Ⅲ-5> 10년 전과 비교한 공기와 물	33
<표 Ⅲ-6> 경제적 환경 인식	34
<표 Ⅲ-7> 소득 원천	34
<표 Ⅲ-8-1> 1970년대 이전 경제적 환경	35
<표 Ⅲ-8-2> 1970년대 경제적 환경	36
<표 Ⅲ-8-3> 1980년대 경제적 변화	36
<표 Ⅲ-8-4> 1990년대 이후 경제적 환경	37
<표 Ⅲ-9> 마을의 경제적 발전 방안	38
<표 Ⅲ-10> 10년 전과 비교한 마을의 인심	38
<표 Ⅲ-11> 어른에 대한 공경심 정도	39
<표 Ⅲ-12-1> 장수 집안의 여부	39
<표 Ⅲ-12-2> 장수 집안의 장수 이유	40
<표 Ⅲ-13-1> 장수 조건 여부	40
<표 Ⅲ-13-2> 장수 조건	41
<표 Ⅲ-14> 장수노인을 위한 마을 행사	42
<표 Ⅲ-15-1> 역사적 전설 및 신화 유무	42
<표 Ⅲ-15-2> 역사적 전설 및 신화	43
<표 Ⅲ-16> 마을의 문화적 시설	43
<표 Ⅲ-17-1> 장수 여건 변화	44
<표 Ⅲ-17-2> 장수 여건이 나빠진 이유	45
<표 Ⅲ-18> 장수의 부정적 요소	45
<표 Ⅲ-19> 장수마을의 보존 여부	46

<표 Ⅲ-20> 장수마을 보존의 주체	46
<표 Ⅲ-21> 장수마을 보존 방법	47
<표 Ⅲ-22> 장수마을 보존을 위한 중요한 방법	48
<표 Ⅲ-23> 장수를 위한 우선순위	49
<표 Ⅲ-24> 장수노인을 위한 시설	49
<표 Ⅲ-25-1> 장수마을 인지도	50
<표 Ⅲ-25-2> 장수마을 인지 경로	50
<표 Ⅲ-26> 장수마을 보존을 위한 접근 방식	51
<표 Ⅲ-27> 장수마을 발전을 위하여 중요한 점	52
<표 Ⅲ-28> 장수마을 발전을 위한 지자체의 지원책	52
<표 Ⅲ-29> 장수마을 발전을 위한 중앙정부의 우선적 지원책	53

I.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인간에게 가장 희망하는 욕구들 가운데 하나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사는 일이다. 그래서 인류는 보건 및 의학 기술의 발달, 과학기술의 혁신, 교육수준의 향상, 식량생산의 획기적 증대 등으로 인간의 평균수명이 크게 증가함.
- 선진국의 평균수명은 100년 전에 비하여 대략 2배 정도 높아 졌고, 한국인의 평균수명도 크게 높아져 2010년에는 78.8세, 2020년 80.7세, 2050년에는 83.0세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통계청, 2002). 2050년에는 우리나라가 일본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평균수명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이처럼 선진국들은 평균수명이 크게 연장됨에 따라 노인층 인구가 증가하여 오래 전부터 노인복지정책들을 다각적으로 마련하여 다양한 노인문제들을 법률적·제도적 틀 안에서 해결해 오고 있음.
- 우리나라도 1997년 8월 ‘노인복지법’을 전면 개정하여 노인복지시설, 소득보장, 의료보장, 노인복지서비스 등에 있어서 제도적 불합리한 측면들을 시정하여 노인복지제도를 개선하여 운영해 오고 있음.
- 현재 우리나라 노인의 평균연령이 75세를 넘으면서 우리사회도 노인문제가 단순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국가 혹은 지역사회가 해결해야할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 사실상 대다수 노인들은 은퇴하면 경제적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왜냐하면 노후에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미리 마련하지 않아 부양을 대부분 자녀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임. 물론 일부 노인들은 젊은 시절에 공식부문에 종사하여 각종 연금 및 보험에 가입하여 노후에 경제적으로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음.
- 노인들은 경제문제 뿐 만 아니라 건강문제, 부양문제, 주거문제, 가족문제, 정신 및 정서적 문제 등을 갖고 있어서 혼자 해결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 이런 문제들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면 어떤 노인들은 극단적으로 자살하는 경우도 최근에 많이 발생하고 있음.¹⁾

- 우리나라는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65세 이상 노년인구 20.0%)가 도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속에서 참여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을 두어 고령사회에 대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음.
- 그러나 고령화 시대에 노인문제가 단순히 사회문제로만 인식할 것이 아니라 고령층 인구가 가져 올 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 됨. 특히 고령사회에서 고령친화산업(예컨대, 주거, 유료복지서비스, 가사대행서비스, 의료치료, 금융, 여가, 직업, 실비용품 등)을 발굴·육성 발전시켜 새로운 동력산업으로 전환하는 인식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함.
- 고령화 시대에 새로운 노인층은 장수사회의 중심세력으로 역할과 기능을 갖게 될 것이며 사회적 인식도 바뀌게 될 것임. 그러므로 고령사회 혹은 장수사회의 도래를 어떤 관점에서 인식하고 어떤 정책적 비전과 실천 의지를 가지고 대처해 나가느냐가 무엇보다도 중요함.
- 선진국의 노인들에게 장수는 일상적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고령사회에서 노인층은 과거의 노인층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규정되며 또한 생활양식의 변화로 가치관, 레저생활, 생활의식, 취미생활, 유행, 삶의 태도 등이 과거와는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²⁾
- 제주지역도 2000년을 기점으로 65세 노인인구가 전체인구 가운데 8.0%를 차지하여 고령화 사회로 이미 진입하였음. 2004년도 제주지역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전국의 타·시도와 비교해 볼때 여덟 번째 순위로 나타나고 있음 (통계청, 2005). 그러나 65세 이상 노인인구 가운데 80세 이상 인

1)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0개국 가운데 1위를 차지하여 미국과 유럽의 7배가 넘고, 일본의 두 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2000년 이후 3년 사이에 57% 증가하여 고령화 추세에 따라서 노인 자살도 급증하여 커다란 사회문제로 증폭되고 있음 (세계일보, 2005년, 8월 10일).

2) 고령사회에서 새로운 노인층의 생활양식은 노인에 대한 의미규정을 새롭게 할 뿐 만 아니라 노후생활의 긍정성과 적극성을 반영하고 있음. 노인의 라이프 스타일 변화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Weber(1995)를 참고할 것.

구는 19.4%를 차지하고, 더구나 85세 이상 인구는 8.2%를 차지하여 제주지역이 전국에서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처럼 제주지역이 전국의 다른 시·도에 비하여 장수하는 노인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장수사회의 도래를 예견할 수 있음. 제주지역의 노인들이 장수하고 있다는 사실은 웰빙시대에 상당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 일으킬 것임.
-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여유있게 생활하고 자녀들을 모두 교육시키고 나면 은퇴 후 노후생활을 행복하게 지내는데 대단히 관심을 갖게 됨.
- 그래서 노후생활을 어디서 보내느냐는 중요한 관심사로 부각되는데 제주지역이 장수지역으로 널리 알려지고, 뿐만 아니라 지역차원에서 노인복지시설 및 서비스들이 잘 발전되어 있으면 웰빙시대에 제주지역은 노후를 편안히 보내고 싶은 지역으로 각광받을 것임.
- 제주지역이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이행단계에서 제주장수마을은 타시·도 거주자들에게 노후에 거주할 만한 매력적인 지역으로 인식될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들은 꼭 방문하고 싶은 지역으로 자리매김 될 것임.
- 따라서 장수마을은 사람들에게 노후에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예컨대, 부양, 소득보장, 취업, 음식, 보건의료, 주거, 여가, 수발 등)이 갖추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관광지역, 체험학습마을, 노후휴양거주지역으로써 뿐만 아니라 학술적 연구대상지역으로 가치를 지니게 됨.
- 이런 측면에서 제주지역의 장수마을이 갖는 다양한 특성 및 여건들을 고찰할 필요성이 있음. 아울러 제주지역의 장수마을이 관광자원화 혹은 문화체험 공간으로 발전시키는 전략들을 모색하는 일이 중요한 과제임.
- 동시에 제주지역의 장수마을 발전의 기본방향과 전략들을 모색하는 일은 제주지역의 노인복지정책을 새로운 방향과 실천전략을 마련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됨.
- 본 연구는 고령화 시대에 제주지역 장수마을 노인들의 삶의 양식을 현대적 의미에서 재조명하고, 아울러 현대인이 노후생활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하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이정표가 될 것임.

2. 연구목적

- 제주지역 장수마을의 물리적 환경, 사회적 환경, 그리고 생활문화 환경들을 파악하여 장수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찰함.
- 제주장수마을 노인들의 생활실태와 문제점들을 실증적 자료에 근거하여 분석함.
- 제주지역의 장수마을이 당면한 현단계 상황과 문제점들을 파악하여 개선책을 제시하고, 아울러 문화관광의 체험공간으로서 지역공동체 지속을 위한 장·단기 정책적 방안을 모색함.
- 제주지역 장수마을이 나아가야 할 향후 발전방향과 과제들을 제언함.

3.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장수마을의 역사
- 장수마을의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환경
- 장수노인들의 다양한 생활실태 분석
- 장수마을의 현황과 문제점
- 국내 및 외국 장수마을의 사례분석
- 장수마을의 장·단기 발전방향 및 실천전략 제언

4. 연구방법

- 제주지역의 장수마을에 대한 다양한 특성과 장수마을의 국내·외 사례분석은 기존의 문헌연구에 의존하였음.
- 제주지역 장수마을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에 의해 수집된 실증적 자료를 분석함.
- 설문조사에 의해서 수집된 자료분석은 빈도분석에 바탕을 둠.

5. 연구의 기대효과

- 제주지역 장수노인들의 생활실태 및 환경을 분석함으로써 제주지역의 이미지를 제고함은 물론 장수노인복지 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실증적 기초 자료로 활용함.
- 제주장수마을이 당면한 다양한 요인들을 고찰함으로써 장수마을 지역공동체의 계승과 장수문화 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함.
- 제주장수마을을 관광자원화 혹은 문화관광 체험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함.

II. 국내·외 장수마을의 사회·문화적 특성

- 본 절에서는 국내·외 장수마을이 가지고 다양한 특성 그리고 장수마을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찰하여 제주장수마을의 발전방향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국내의 대표적인 장수마을인 전남 순창군 사례와 세계적 장수마을로 잘 알려진 일본의 오키나와 사례를 간략히 살펴보았음.

1. 전남 순창군 장수마을의 사례분석

- 전남 순창군은 전국 제1의 장수지역으로 부각되고 있음. 2002년 10월 서울대 노화 및 세포사멸연구센터에 의하면, 순창군은 인구 10만명 당 100세 이상 장수노인 29명으로 전국 최고이며, 65세 이상 노인 중 8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전국 최고로 보고되고 있음. 뿐만 아니라, 미국 타임지 2003년 7월호에도 전남 순창군을 세계 장수고을로 선정하여 소개하기도 하였음.
- 전남 순창군 지역의 노인들은 근면한 생활과 풍부한 운동량, 여유롭고 넉넉한 생활습관을 보임. 순창군의 지역적 환경을 살펴보면, 맑은 물, 깨끗한 공기, 비옥한 토양 등 오염되지 않은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있음.
- 예로부터 순창은 물이 구슬같이 맑다고 하여 옥천(玉川)골이라고 하였음. 이러한 쾌적한 자연환경은 세계 장수지역의 공통된 특성 중 하나임. 또한 연 평균 13.2℃의 온화한 기온과 수해 등 자연재해가 없는 지역으로 유명함.
- 순창군은 대표적인 장수식품인 고추장, 된장 등 전통 발효식품의 본 고장이기도 한데, 전국 장류 발효식품 생산량의 38%가 전남 순창군에서 생산되고 있음.
- 전남 순창군은 장수마을의 이미지 구축을 위하여 여러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거나 향후 계획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장수벨트 행정협의회가 구성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협의회 자치단체는 순창, 곡성, 구례, 담양군 등 4개 군으로 구성하여 장수벨트 지역 실태조사 실시, 대형 국책사업 발굴을 위한 Task Force 팀 구성, 장수벨트 지역 발전방향 연구용역 등을 수행하고 있음.
- 2005년 7월에는 건강장수 이미지 브랜드를 제정하였음. 또한 건강 장수카드 작성 및 DB화하여 전 군민을 대상으로 질병 현황 11개 항목을 지정하였음.
- 건강장수 이미지 대형 홍보간판을 88고속도로변에 설치할 계획임.
- 2006년 10월 중에는 제1회 건강 백세인 축제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 축제에서는 결혼 60주년 이상 장수부부 전통 회혼례, 건강 백세인 국제심포지엄, 실버문화공연 및 체육행사 등을 포함하고 있음.
- 건강 장수촌 조성 사업으로 시니어 단지(Senior Complex) 조성을 추진하고 있음. 금과면 내동리 일원에 85천평 규모, 474억원 사업비를 투자하여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 동안 주거·생산단지 및 의료·문화 복지 시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4년 12월에는 한국농촌공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공동추진하고 있음.
- 2006년 6월 개원을 예정으로 노인전문요양원을 건립하고 있음. 2,094백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풍산면 대가리 (구) 오산초교 위치에 지상 2층 507평, 6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전문요양원을 건립하고 있는데, 주요 시설로는 자원봉사실, 물리치료실, 생활보조실, 거실 등이 구비될 예정임.
- 2006년 4월 개원을 예정으로 노인 및 장애인 복지회관을 건립하고 있음. 2,723백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순창읍 남계리 (구) 현대병원 위치에 지상 3층 588평의 규모로 건립 중에 있음. 주요 시설로는 사무실, 재가작업실, 점자교육실 등을 갖춘 장애인 회관과 컴퓨터실, 물리치료실, 찜질방, 회의실 등을 갖춘 노인회관이 복합건물로 건립 공동 활용될 예정임.
- 2006년 10월 개원 예정인 노인건강증진센터를 건립하고 있음. 1,940백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순창읍 남계리 (구) 현대병원

위치에 지상 2층 300평의 규모로 건립 중에 있는데, 주요 시설로는 체력단련실, 검진실, 건강증진실, 물리치료실 등을 구비할 계획임.

- 건강 및 장수복지 시책으로는 2006년 1월부터 장수수당이 90세 이상 장수노인을 대상으로 1인당 매월 3만원이 개인별 계좌 입금되고 있음. 2006년 7월에는 치매노인 60명 정도를 대상으로 치매노인 신원확인용 팔찌를 제작하여 보급할 예정임.

2. 오키나와 장수마을의 사례분석

- 오키나와 현의 평균수명은 남녀 모두 일본에서는 1위를 차지하고 있음. 또한 100세 노인의 수는 오키나와가 압도적으로 많아 2000년 현재 장수자율에서 인구 10만명당 34.76명으로 전국 평균 12.19명의 4배에 달하고 있음.
- 오키나와 지역은 온난한 기후로 살기 좋고 장수한다는 지역으로 옛날부터 주목받는다는 사실은 문헌에도 나타나고 있음. ‘球陽’이라는 역사서에서도 90~100세 장수자에 대한 표창기록이 있었으며, 100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상을 주었고, 이들 장수자의 연령은 ‘生子訂文’과 사망시의 ‘死人訂文’으로부터 확인되었는데, 수명의 신뢰성이 높은 자료로 고령자나 장수자를 중요하게 다루는 사회였음을 엿볼 수 있음.
- 일본 후생성은 국민이 주요 死因인 생활습관병을 저하시키기 위해서 ‘건강일본 21’이라는 새로운 건강정책을 내놓았음. 생활습관병을 예방하는 것은 일본의 막대한 의료비를 억제하기 위한 큰 과제가 되고 있음.
- 오키나와의 경우는 고령자의 영양, 운동, 휴양이라는 기본적 생활양식의 양호함이 장수를 만드는 큰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음.
- 오키나와 지역의 식생활을 전국과 비교해 보면, 식염섭취가 일본에서 가장 적고, 동물성 단백질 섭취가 많으며, 야채류 섭취량이 많아 일본의 전통식사 가운데 특이한 양상을 보임.
- 오키나와현은 후생성이 목표로 하는 1인 1일 10g 이하의 섭취량에 가장 가까운 현으로 조사시 大宜味 마을은 9g 이었음. 기후관계로 1년 중

신선한 야채가 풍부하고, 소금에 절인 음식도 적은 편이었음. 된장국도 건더기가 많은 편이며, 생선회도 식초 등을 이용하므로 조리상의 특징상 낮은 식염섭취를 가져다 주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음.

- 일본의 東北 지방은 고혈압, 뇌졸중, 위암 등이 많은 지역으로, 이들 질환과 식염섭취량은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뇌졸중 자연발생에 대한 지역 역학조사결과, 동물성 단백질 섭취량이 낮은 지역일수록 뇌졸중의 발생과 사망률이 높았고, 반대로 고기와 생선 등의 동물성 단백질 섭취량이 많은 지역일수록 낮았음.
- 오키나와 지역은 돼지고기를 많이 먹으며, 혈액과 내장을 포함해서 모든 부위를 먹는 편임. 오키나와 지역의 돈육이용에서 특징적인 것은 조리과정에서 시간을 가지고 삶아 지방분을 제외시키는 조상의 지혜도 오키나와 주민들의 건강에 공헌하였다는 사실은 식생활 문화의 한 특징으로 볼 수 있음.
- 오키나와 지역에서는 정월에 사용하는 돼지고기로 소금에 절인 것을 귀중한 식품으로 여겼음. 서민의 일상생활은 감자와 야채를 주식으로 한 소박한 것이었으나, 지역주민이 모두 나누어 먹는 공동문화가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음.
- 많은 행사와 일상생활에서 고기, 생선, 콩 등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기회가 많은 것이 주민의 건강유지에 도움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음.
- 또한 집의 신축이나 마을공동작업 후 모두가 돼지고기 외에도 냄비요리를 먹거나, 가까운 바다나 개천에서 생선을 잡아 이용하는 등 필요한 단백질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었음.
- 이와 같은 식생활문화는 불교의 영향으로 전통적으로 육류의 섭취가 제한된 일본본토의 식생활보다 우수한 것이 특징의 하나이며, 장수요인으로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음.
- 장수촌으로 알려진 大宜味 마을은 ‘생애현역’ 의미가 강할 만큼 활동하는 노인을 만날 수 있음. 게이트볼장에는 노인들이 많음. 80세가 훨씬 지난 노인들의 모습을 저녁까지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 이 마을의 특징임.

- 東北 지방의 농촌 노인들에 비하여 大宣味 마을의 노인들은 얼굴표정, 자세, 동작의 민감성 등이 현저하게 좋은 것을 볼 수 있음.
- 실제로 각종 의학검사치를 비교해보더라도 두 지역의 노인들에서 큰 차이가 발견되었음. 예를 들면, 영양상태를 나타내는 지표의 하나인 알부민도 고령이 되면 저하되는 것이 보통인데, 東北 지방에 비하여 大宣味 마을은 약간의 변화가 있을 뿐임. 콜레스테롤도 大宣味 마을의 노인들은 매년 200~220mg/dl 로 동북지방 노인들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오키나와 지역의 온난한 기후는 일년 동안 옥외에서 활동이 가능하게 만듦. 東北 지방의 노인이 겨울동안 옥내에서 조용히 하루하루를 보낼 수밖에 없는 환경과는 차이가 있음.
- 大宣味 마을은 고령자 대부분이 독거노인이거나 노인부부만의 세대이지만, 결코 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외롭게 보내지 않음. 왜냐하면 별거하는 자식이나 손자, 이웃의 친지와와의 교류가 깊기 때문임. 또한 노인들의 생활적응성이 높고, 주관적 긴장감을 높여 총체적으로 노인들의 건강에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오키나와와 동경노인의 수면습관과 수면건강의 지역비교를 보면, 취침시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기상시간은 오키나와가 빨랐고 수면시간도 짧았음. 수면시간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오키나와의 고령자는 양질의 수면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동경의 노인은 90%이상에서 수면요소가 있었으나, 오키나와 노인은 10% 미만으로 나타남.
- 한편 고령자의 생활양식을 비교해 보면, 산책습관과 낮잠습관을 가지는 노인의 비율이 오키나와에서 많았고 운동량도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오키나와 고령자의 수면건강 유지에 생활양식의 양호함이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며, 장수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음.
- 건강의 세 가지 요소는 영양, 운동, 휴양이라고 말하고 있음. 건강은 생명의 양호한 상태를 나타내는 말로 중요한 생명 그 자체를 말함. 오키나와에는 생명이야말로 보물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생명과 건강을 강조한 것임.

- 인간의 생물학적 수명은 115세부터 120세 정도라는 설이 유력함. 최근 일본의 최고령자는 115세 전후임. 그러나 개개인의 수명은 그 사람의 탄생후의 생활방식에 따라 큰 차이가 나고 있음.
- 그러므로 생활방식을 점차 확대하고자 노력하여 영양, 운동, 휴양의 균형을 생각하는 생활을 실행하는 것이 중요함. 따라서 식생활, 신체활동, 휴양(수면건강 포함)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행복한 건강장수와 연결되는 것임.
- 오키나와 지역은 순환기질환이 지극히 적고, 세계 대표적인 장수지역으로 불리우지만, 오키나와 장수자의 건강을 유지해 온 가장 중요한 초석이 된 것은 역시 ‘식생활문화’이다. 食은 운동, 휴양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食을 바르게 하는 것은 건강습관의 확립에서도 지극히 중요한 것임.

III. 제주 장수마을의 사회·문화적 특성

1. 장수마을 형성과 역사적 발전

- 제주지역에는 여러 장수마을이 기존의 연구(제주도, 2002)에서 종합적으로 다루어진 내용을 중심으로 장수마을 형성과 역사적 발전을 언급하고자 함.
- 본 절에서는 한경면 금릉리, 애월읍 고성 1리, 안덕면 감산리, 한경면 산양리, 애월읍 유수암리 등의 5개 장수마을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함.

1) 한경면 금등리

- 한경면 금등리는 해안 일주도로인 12번 국도를 따라 산북지역의 서부해안에 위치하고 있는 마을임. 제주시로부터의 거리는 약 38-40km 정도 떨어져 있고, 일상생활 상에서의 편리한 지역은 한림읍 시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한림읍 시가지와는 대략 5-6km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고 있음.
- 금등리는 다른 장수마을과는 달리 전형적인 해안마을임. 금등리의 동쪽은 판포리, 서쪽으로는 두모리, 남쪽으로는 조수리가 자리 잡고 있음. 금등리는 약 90여년 전에 두모리에서 분리되었으며 옛 마을 이름은 ‘한개(대포)’라 함.
- 주변의 지형적 특색을 보면, 북서쪽에는 비교적 수심이 낮고 해저 암반이 많은 연안 해안이 위치하고 동북쪽으로는 널개오름과 정월오름, 남동쪽으로는 저지오름이 위치함.
- 금등리의 거의 모든 택지와 농경지들은 남동쪽에서 북서쪽 방향으로 아주 완만한 경사를 이루는 지형면을 이용하여 분포하는 형태임. 마을 안에서 보면 주변 지역은 완전히 개방된 상태로서 일상생활에서의 가시거리가 상당히 높게 나타날 수 있는 지형적 조건을 띠고 있음.
- 금등리 주변의 식생은 전체적으로 볼 때 2개 마을 중 본동보다는 남동쪽에 위치하는 수장동(상동)으로 갈수록 삼림이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남. 일부의 활엽수종을 제외하면 대부분은 소나무가 주종을 이룸.

- 경지는 마을의 형국에 따라 주로 남동-북서방향으로 길게 분포하는 특색을 보이는 가운데, 아주 적은 필지의 논이 두모리와의 경계점에 위치하는 특징 외에는 밭과 임야가 불규칙적으로 분포하는 상황을 보임.
- 금등리의 자연자원인 용천수는 해안지역인 만큼 풍부한 편이었음. 공동수도가 보급되기 이전까지는 주민들은 ‘애개수’, ‘비러물’, ‘바툼물’, ‘손두물’의 네 군데의 용천수를 이용하며 생활하였음.
- 강수량도 풍부한 편이었으며 보통 여름 가뭄 때에도 강수량이 줄지 않아 물 걱정은 별로 하지 않았다고 함. 더불어 마을과 해안 용천수까지의 거리도 가까워서 허벅으로 집까지 운반하는 데도 무난하였음.

2) 애월읍 고성 1리

- 북제주군 애월읍에 속하는 고성 1리는 16번 국도인 중산간 도로 상에 형성된 마을임. 제주도 전체를 기준으로 해서 볼 때, 마을의 위치는 산북지역 서부 중산간에 위치하고 있음. 1966년부터 중산간 도로가 개통된 이후 시외버스가 중산간 지역에 왕래함에 따라 중산간 지역 내의 주민들의 생활은 큰 폭으로 달라지게 되었음.
- 고성 1리는 해발고도 상으로 보면 120-140m 사이에 위치함. 마을 주변의 높은 지형은 북쪽에 파군봉, 서북쪽에 수산봉, 남쪽에는 안오름, 극락오름과 산심봉이 위치하나, 산세가 다소 미약하고 비교적 원거리에 위치해 있어 고성 1리의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님. 건천인 고성천은 마을의 일부지구를 나누며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고 있음.
- 마을 중심부는 도로를 낀 상태로 평탄면이 우세하고, 남서쪽에 위치하는 향과두성 부근에서 남동쪽 방향으로 다소 정사각을 취하고 있는 관계로, 마을 자체는 분지형 마을과 같은 구조를 취하고 있음.
- 6번 국도가 취락을 양분하는 형태로 가로지르고 있으며, 가장 근접한 해안(하귀)과는 약 3.5km 떨어져 있음. 그리고 제주시와 고성 1리와의 거리는 마을 중심부에서 구제주 중심부까지를 기준으로 할 때 약 14km 정도이다. 고성 1리는 크게 본리와 ‘보로미’로 구성됨.

- 고성 1리는 중산간 마을이지만 동쪽으로는 광령 1리와 3리, 서쪽으로는 장전리, 남쪽으로는 고성 2리와 유수암리 및 광령 2리, 그리고 북쪽으로는 상귀리가 위치하는 등 주변부가 여러 인근 마을로 둘러싸인 관계로 인해, 과거로부터 활발한 생활교류가 행해질 수 있는 위치적 조건을 안고 있음.
- 고성 1리의 주변 식생은 주로 마을의 남쪽-동남쪽 방향에서 탁월한 경향을 보임. 특히, 마을 남쪽에는 향파두성이 위치하는데, 이 향파두성을 중심으로 하여 동남쪽을 감싸는 듯한 상태로 소나무를 중심으로 한 몇 수종이 두드러진 분포를 보이고 있음. 그리고 상천을 따라 남북으로도 소나무가 무성한 군락을 이루고 있음.
- 천연자원의 측면에서 고성 1리의 용천수는 ‘구시물’을 비롯하여, ‘오성물’, ‘장수물’, ‘종내미물’, ‘거제비물’이 있다. 이들은 구분상 중산간 지역 용천수에 해당되는데, 다른 중산간 마을에 비하여 상당히 용천수가 풍부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
- 특히 마을 공동수도가 보급되기 전까지는 ‘구시물’이 주민들의 주요 식수원이었으며, ‘오성물’과 ‘종내미물’, ‘거제비물’은 보조적인 식수원으로서의 성격이 강했음. 이들은 모두가 마을 중심부에서 10-1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장수물은 마을사람들의 식수로 거의 사용하지 않았음.

3) 안덕면 감산리

- 안덕면 감산리는 산남 서부지역의 해안 일주도로 상에 위치한 마을임. 감산리를 중심으로 동쪽은 창천리, 서쪽은 화순리, 북쪽은 서광서리가 자리 잡고 있으며, 남쪽으로는 월라봉과 군산이 해안으로 연결됨. 그리고 마을의 남쪽 즉 일주도로와 월라봉-군산 사이를 창고천이 동북쪽에서 서남쪽 방향으로 가로지르며 흐르고 있음.
- 감산리는 해안 일주도로변 상에 위치하면서도 해발고도 상으로는 100-150m사이의 비교적 높은 지점에 자리 잡고 있음.

- 해안지역과는 남쪽의 율라봉, 군산 및 창고천으로 인해 단절되어 있으며, 북서쪽으로는 논오름, 북동쪽으로는 신산오름 등이 위치하고 있어, 전체적으로는 분지형태를 취하는 중산간 지역의 마을 분위기를 느끼게 하고 있음.
- 식생적 조건에서는 안덕계곡이 형성되어 있는 창고천을 따라 상록수림이 분포하며, 그 남쪽의 율라봉과 군산 주변, 그리고 북쪽의 논오름과 신산오름의 주변부 등 침엽수와 활엽수가 혼합된 삼림이 곳곳에 탁월한 분포를 보이고 있어, 장수마을의 이미지를 한층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음.
- 또한 마을 주변에 많이 분포하는 과수원에는 감귤목과 방풍림으로 조성된 삼나무 군락들이 함께 어우러져, 삼림이 한층 더 풍요롭게 느끼게 하는 상황임.
- 주민들의 경지는 마을 안과 마을 북쪽에 주로 분포하고 있음. 남쪽의 군산과 율라봉 방면으로도 분포하고 있으나 지형적으로는 경사도가 더해지는 상황이라 경작하기에는 매우 불리한 조건임.
- 밭은 특히 일주도로 북쪽의 신남동과 창천리, 신남동과 상창리를 잇는 지역 내에 탁월한 분포를 보임. 주민들은 일반적으로 ‘상창 지경’이라 하는 지구인데, 보편적으로 토질은 좋지 않아 수확은 적다고 함. 과거 이 지구 내의 밭에는 조나 메밀을 주로 재배하였으며, 마을 내 또는 일주도로 주변에 위치하는 밭에서는 보리를 많이 재배하였다고 함. 상창지경은 넓기 때문에 감산리 주민들의 임야나 새(띠) 밭도 이곳에 많이 밀집되어 있음.
- 감산리는 제주도 내에서도 물이 상당히 풍부한 마을로 알려져 있음. 용천수가 여러 곳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로부터 물에 관한 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다른 마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혜택 받은 마을임. 공동수도가 보급되기 전에도 각 가정의 식수조달에 큰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였음.

4) 한경면 산양리

- 산양리는 한경면의 남쪽 끝자락, 대정읍과의 경계지점에 위치하는 전형적인 중산간 마을이며, 해발고도는 80-100m이다. 제주시로부터 약 50km 정도 떨어져 있음. 마을을 중심으로 하여 동쪽에는 대정읍 구역

리, 서쪽으로는 낙천리와 조수리, 남쪽으로는 대정읍 무릉 2리와 신평리, 북쪽으로는 청수리가 이웃하고 있음.

- 산양리는 크게 3개 마을 즉, 리사무소가 위치하는 연화동과 연화동 북쪽의 수룡동, 서쪽의 월광동으로 구분됨. 이들 3개 마을은 마치 삼각형의 형태로 연결되어 있음.
- 주변 지형을 보면, 산양리의 수호신 격인 새신오름이 연화동 바로 북쪽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수룡동의 동쪽 즉, 월광동 방향에서 북서쪽으로는 가마오름이, 연화동 동쪽으로는 구분오름과 성등이 모루가 자리 잡고 있음.
- 이처럼 마을 주변에 높고 낮은 오름들이 자리잡고 있다고는 하나, 전체적으로 마을 자체는 거의 평탄지에 가까운 지형면에 입지해 있다고 하겠음.
- 이것은 제주도의 북서지역의 특이한 지형적 특성 때문으로 볼 수 있는데, 북서지역의 지형은 다른 지역에 비해 한라산체로부터 받은 영향이 서서히 감소함에 따라 완만한 경사지를 이루면서 넓은 저지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임.
- 산양리 주변의 식생분포에서는 연화동과 수룡동 주변의 일부 택지와 경지분포 지구를 제외하면 풍부한 삼림을 자랑함. 마을 주변에 오름군이 많이 위치하는 것 자체가 다양한 식생이 존재할 수 있는 지역적 조건이 됨.
- 특히, 월광동 주변을 포함한 대정읍 북서지역일대는 과거로부터 고지도에 등장할 정도로 제주도에서는 대표적인 숲이 분포하는 지역임. 다양한 수종과 더불어 밀도 높은 입목량은 주변지역에 맑은 공기를 공급하는 역할을 함.
- 자연자원의 측면에서 볼 때, 산양리에 용천수는 없음. 따라서 과거로부터 주민들의 식수는 주로 봉천수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음. 먼저 연화동 주민들은 마을의 중심부에 위치하는 ‘여뀌못물’과 ‘방짓물’을, 수룡동 주민은 ‘산전밭물’과 ‘가마오름물’을 사용해 왔음.
- 월광동 주민들은 연화동과 월광동 사이에 위치하는 ‘조롱물’을 이용해 왔음. ‘조롱물’은 주변의 다른 봉천수에 비해 넓고 깊게 만들어져 가뭄 때에는 연화동이나 수룡동 주민들이 같이 사용할 정도로 많은 물을 저장할 수 있었음.

5) 애월읍 유수암리

- 애월읍 유수암리는 산북 서부지역에 위치한 전형적인 중산간 마을임. 유수암리는 크게 유수암, 거문덕, 유수암단지 마을로 구성되는데, 유수암 마을은 해발고도 200-250m, 거문덕이 마을은 270-290m, 유수암단지 마을은 320-340m 사이에 형성되어 있으며, 3개 마을은 서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음.
- 유수암리는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부터 ‘호리물’과 ‘검은데기’ 마을을 합해 금덕리로 사용해 오다가, 1996년 1월부터 현재의 유수암리로 개명해서 사용하고 있음.
- 지형적으로는 한라산이 위치하는 남사면으로 갈수록 경사각을 더하는 지표면의 특성을 보임. 주변에서 특히 높은 지형은 거문덕이 마을 서쪽에 위치하는 극락오름이며, 마을과는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유수암리의 전체 지형에도 영향을 주고 있음.
- 그 외에 거문덕이 마을에서 약 3.5-4.5km의 거리상에 위치하는 산심봉, 큰 오름 및 작은 오름 등도 있으나, 직접적으로 유수암리의 지형을 제약하여 생활에 불편함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음.
- 기후조건은 지리적인 위치가 고성 1리와 거의 동일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주시 지역의 기후조건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해안마을과 해발고도를 비교하더라도 약 100-200m정도 높기 때문에 여름에는 기온이 다소 떨어져 시원하고, 겨울에는 상대적으로 눈이 많이 내리고 기온이 떨어져 그만큼 추위를 더 느낄 수 있는 지형적 조건임을 짐작할 수 있음.
- 유수암리 주변의 식생 조건은 고성 1리와 마찬가지로 중산간 지역인 만큼 살림이 풍부하여 매우 유리함. 유수암리를 중심으로 동북쪽으로는 향과두리성 부근, 동남쪽 방향으로는 극락오름 주변부에 임야와 삼림이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남.
- 동쪽으로는 소길리와 경계를 이루는 지구와 유수암단지 마을의 남쪽방면에 비교적 큰 규모의 삼림의 자리 잡고 있음. 그리고 마을안팎 곳곳에

는 설촌과 함께 식재한 듯한 정자목과 소나무 군락 등이 과수원 조성과 더불어 부차적으로 식재한 붕풍림과 잘 어우러져 있음.

- 토양은 밭을 기준으로 할 때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산북 지역의 해안지역과 일부 중산간 지역을 포함하는 암갈색토가 우수암리 부근까지도 널리 퍼져 있는 것으로 해석됨.
- 최근 각 농가에서는 감귤재배가 활발하며 그 외의 주요 밭작물로는 보리, 콩, 고구마 등을 많이 재배하고 있고, 거문덕이에서는 보리와 콩 등의 복합영농의 형태를 취하는 농가가 많으며, 우수암단지에서도 감자나 두릅 등을 재배하는 농가가 많아져, 과거와 같이 축산업에만 의존하는 전업농가는 거의 존재하지 않음.
- 우수암리의 경우, 용천수는 우수암천, 고다리물, 고주물, 후리물, 절물 등 5개소임. 이들 중 흐리물을 제외한 4개소의 용천수가 지질 특성상 용암류 경계층에서 솟아나는 것이며, 흐리물은 사력층에서 솟아나는 것이다. 중산간 지역의 마을에서도 이처럼 많은 용천수가 분포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할 수 있음.

2. 장수마을의 자연적 환경

1) 장수마을의 지리적 환경 특성

- 정광중(2002)은 한경면 금동리, 애월읍 고성 1리, 안덕면 감산리, 한경면 산양리, 애월읍 우수암리 등의 5개 장수마을에 대하여 지리적 지표의 추출을 통해 지리적 환경과 제 조건을 검토·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장수마을의 지리적 환경요소의 공통적 특성을 제시하였음.
 - 5개의 장수마을은 지리적인 ‘위치’와 관련하여 중산간 지역에 위치하는 마을이거나 또는 바다의 의존도가 상당히 약화된 마을이라는 점임.
 - 장수마을은 물이 풍부하다는 점이다. 장수마을의 주민들에 의하면, 마을의 용천수는 거주하고 있는 마을 주민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는 인근 마을 주민들도 사용할 정도로 물의 양과 질에서 손색이 없다고 보았음.

- 5개의 장수마을 전체가 경지의 비옥도가 뛰어나 농사짓기에는 비교적 무난했다는 점임. 산북 서부지역 중 특히 해발 200m를 한계 지점으로 하여 해안지역 일대는 토양구분 상 현무암이 풍화토인 암갈색토로 구분되고 있음. 이 토양은 그 성질상 미사질 식양토 혹은 미사질 식토라 하는데 배수가 아주 양호하며 제주도 내에서는 다른 토양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옥도가 높음.
- 5개의 장수마을 주변에는 어떠한 형태로든 임야나 삼림이 많이 분포하거나 주변에 지형적으로 높은 2-3개의 오름을 두고 있다는 점임. 이 점은 과거의 생활을 전제로 할 경우 주민들의 땀감 조달, 마소의 풀(‘촨’) 확보 또는 지붕용 재료인 띠(‘새’)의 조달에도 매우 유리했을 것으로 봄. 주변에 많은 오름이나 넓은 임야 및 풍부한 삼림의 존재는 일상생활에서 경관적 기능체로서의 효과와 신선한 공기의 공급효과는 물론, 일상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각종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지가 되었음.

2) 장수마을의 인문적 환경 특성

- 마을내의 가옥들이 소밀상태나 거주지의 공간적 범위는 주변 이웃과의 대인관계를 비롯하여 일의 협력관계(수눌음), 그 외의 문화활동(담소, 장기나 바둑, 기타 소일거리) 등의 관계를 유추할 수 있는 근거가 됨.
- 도로와 교통조건은 장수마을을 관통하는 일주도로(12번 국도), 중산간도로(16번 국도), 그리고 지방도(군도)와의 연결성, 인근 도시부와 연결도로로서의 특성과 근접성(도로를 이용한 왕복시간 기준), 마을내의 도로조건(포장여부, 도로너비 등), 나아가 시외버스의 1일 운행 횟수와 시기별 변화 등이 중요한 사안이 됨. 도로와 교통편에서 볼 때, 극단적으로 생활의 제약을 받거나 주변으로부터의 고립적 환경이 시대적 배경과 개인적 사고에 따라서 장수현상과도 관련될 수 있다는 점임.
- 경지의 분포와 토지이용에서는 주민들이 소유하는 주요 경지가 마을을 중심으로 어느 방향으로 위치하며 어떤 상태로 확산되어 있는지 동시에 그것들이 마을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의 공간적 범위 안에 분포되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함.

- 또한 경지별 분포상황이나 토지(지목)별 이용 상황(과거와 현재)도 점검해야 함. 현재 80세 이상의 장수노인이 일을 하던 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장수마을의 농경지의 분포와 분산정도, 토지이용의 과거와 현재 상황을 비교·검토해 보는 것은 간접적이지만 장년기 시절에 농사일을 통한 개인의 운동량이나 신체적 활동상황 등을 유추할 수 있는 근거가 됨(정광중, 2002).

3) 장수마을의 식생활 특성

- 고양숙(2002)은 연구를 통하여, 제주지역 장수노인의 식생활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음.
 - 제주지역 장수노인들은 식사는 집에서 직접 만들고, 규칙적 생활을 하며, 최근까지도 식욕이나 식사량을 일정하게 유지하였으며, 활동량이 많았던 젊은 시절에도 노동량에 비해 전체 열량섭취는 많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되었음.
 - 보리차 등의 끓인 물보다 냉수를 마시며 특별히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음식은 대부분 없었으며, 간식도 자주 하는 편이 아니었음.
 - 주식으로는 현재 거의 쌀밥을 먹고 있지만 과거에는 보리밥의 사용빈도가 높았고, 부식 중 가장 자주 이용되는 것은 찌개보다 국이며, 야채반찬 중에서 익힌 야채 반찬의 사용빈도가 높았고, 과거에는 생야채의 섭취빈도가 높았음.
 - 된장국과 된장은 과거나 현재 모두 常食하는 식품이었음. 된장국, 냉국, 야채반찬의 섭취빈도는 거의 매일 혹은 일주일에 4-5번 먹는 것으로 보아 자주 사용하는 배추, 무, 생야채, 해조류 섭취량이 많았었을 것으로 추정됨. 특히 무기질이 풍부한 해조류 또한 상용하는 음식 중 하나였음.
 - 생선과 육류는 가끔 사용하였고, 주로 사용하는 육류는 대부분 돼지고기였음.
 - 매운맛, 짠맛, 신맛 등의 진한 맛보다는 담백한 맛을 더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현재 영양섭취 상태는 1068kcal로 기초 대사량 이상은 섭취하고 있었음. 평균 연령이 85세임을 고려하면 열량섭취가 적지 않지만 비타민과 무기질이 부족한 편임.

4) 장수마을의 주거환경 특성

○ 한창영(1997)은 제주도의 주거환경 특성으로 밖거리(바깥채) 모형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음.

- 배우자의 사별 또는 친지의 상실로 대인관계가 고독하게 된다고 하지만, 제주도 노인은 한 울타리 안에 거주하므로 고독의 문제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임.
- 제주도 노인은 경제적으로 자립하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한 울타리 안에서 살면서도 정지(부엌)와 고팡(곡식창고)을 따로 둠.
- 안거리에서 밖거리로 옮긴다고 해서 노인의 지위가 저하되는 것은 아님. 그것은 노인의 안거리(안채)에서 누렸던 것과 같은 독립성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임.
- 비록 노인이 밖거리에 있지만 자녀의 가족이 살아가는 일상생활을 늘 살펴볼 수 있음. 따라서 노인은 무료함을 별로 느끼지 않게 됨.
- 노인이 체득한 풍부한 생활경험은 손자들에게 자연스럽게 전승되어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주게 됨. 젊은 손자의 시각에서는 경로사상을 함양하는 장을 밖거리 주거모형이 마련하고 있다는 것임.
- 밖거리 모형은 부모와 자식간의 눈치보기를 지양함. 따라서 서로 편안한 관계를 유지함. 특히, 노인들은 아늑한 분위기를 좋아함.
- 고부간에 갈등을 예방해 줌. 서로 독립생활을 영위하기 때문에 내면적, 정신적 세계에도 독자성이 유지됨. 따라서 고부간에 갈등을 최소화시키는 역할을 밖거리 주거모형이 수행함.

3. 장수마을의 경제적 환경

1) 일상생활 환경

○ 김진영(2002)은 제주지역의 장수노인의 일상생활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제시하였음.

- 기초일상생활을 살펴보면, ‘옷입기’의 경우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옷장에서 옷을 꺼내 단추나 지퍼, 벨트를 채워 혼자 입을 수 있다는 응

답이 전체 응답자 중 83.5%였음. ‘세수하기’를 혼자 할 수 있는 경우는 79.2%이며, ‘목욕하기’의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60.0%가 혼자 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음. ‘혼자서 식사하기’는 89.3%로 나타났음.

- 도구적 일상생활활동을 살펴보면, 자신의 신체 일부를 가꾸는 일중에서 가장 쉽다고 여겨지는 빗질, 화장, 손/발톱 깎기 등 ‘몸단장’이 노인들에게는 그렇게 쉽지 않은 일들 중 하나인 것으로 나타났음. 전체 응답자 중 25.7%는 부분적 또는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집안일’ 처리의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50.7%만이 혼자서 가능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집안일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도 14.3%나 되었음.
- ‘식사하기’에 비해 ‘식사준비’는 다소 기력을 필요로 하는 활동인데, 혼자서 가능하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47.6%에 불과하였음.
- 가족과 이웃간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해주는 ‘전화사용’과 관련해서는 그 이용이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음. 즉, 36.2%만이 자신이 필요로 하는 전화번호를 찾고 전화를 걸 수 있다고 하였으며, 나머지 노인들은 전화이용에 단편적, 제한적이었음. 특히, 전화를 받을 수 있으나, 걸지는 못하는 경우가 29.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2) 노동 및 경제활동

○ 전경수(2002)는 제주도 장수노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기억을 통하여 삶의 과정에서 경험된 그들의 일과 일에 대한 태도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제시하였음.

- 삶에 대한 철학의 차원을 조명해 보면, 제주도 장수노인들의 입장은 운명론자들임. 노동과 역사 또는 정치라는 덩어리로 다가오는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저항도 아니고 적극적인 수용도 아닌 입장을 취함.
- 장수노인들은 농사 외에도 자신들의 이력을 말해주는 여러 가지 종류의 노동을 한 경험들을 갖고 있음. 산에서 숲을 만들어 시내에 가서 파는 숲장수, 해방 전 일본에서의 방적공장과 종이상자 공장에서의 노동경험, 일본에서의 징용, 징용을 피해서 만주로 간 뒤 만주의 소화제강소에서의 노동, 양태 만들기, 육지와 일본으로의 바깥 물질, 목수, 기와 만들기, ‘4.3’사건

때 개인적 원한에 의한 고문 등, 정치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살아온 사람들의 인생역정은 삶의 질곡으로 표현될 수 있을 정도라고 할 수 있음.

- 제주 장수노인은 ‘고생했기 때문에 오래 산다’는 내관적인 설명을 하고 있음. 고생에 대한 보상으로 장수라는 현상을 얻게 되었다는 이야기임. 고생이 장수의 원인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는 없음. 그러나 그러한 설명의 배경에 깔린 인생과 인생을 살아가는 철학의 이면을 읽을 수 있음. 가늘게 산다는 것이 고생이고, 가늘게 산다는 것은 조심스럽게 산다는 것임. 항상 주변에 대해서 배려를 하고 무리 없이 살아가려는 태도를 갖고 있다는 것임. 어려웠던 인생살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읽을 수 있음.
- 제주 노인들이 겪어온 경험으로서의 스트레스라는 것을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음. 하나는 일을 중심으로 하는 일상생활로부터의 스트레스이고, 다른 하나는 역사적인 사건(식민지 경험, 4.3사건과 같은 유형 분쟁)으로부터 연유된 역사적 스트레스라고 말할 수 있음.
- 제주 장수노인들이 살아온 삶의 과정 속에서 경험하였던 생활의 3품은 배고팠던 것, 너무도 많은 농사일을 해야 했던 것, 그리고 정치적 충격으로 인하여 갈기갈기 찢어진 삶의 현장에 관한 기억들임. 이러한 3품은 질병과 외로움, 그리고 경제적 문제를 말함. 현재 제주도의 장수노인들에게 동일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4. 장수마을의 사회·문화적 환경

1) 제주노인의 특성

- 제주노인은 검소성, 근면성, 자립성, 장수성, 강인성, 온고성 등의 특성을 보임(한창영, 1983). 제주노인의 검소성은 검소한 농가구조, 갈옷, 검소한 음식, 소박한 주택구조, 소박한 언어, 현실주의적 공리성의 민요, 조냥정신(절약) 등에서 찾아볼 수 있음.

- 제주노인의 근면성은 노동을 생활화하면서 근면하게 살아 왔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김영돈(1984)의 연구에 따르면, 제주도 민요의 4/5정도가 노동요이며 이 노동요의 절대적 우위성은 한국의 민요와 대비하여 볼 때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남을 보여주었음.
- 제주노인의 자립성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것은 노후에도 자녀들과 동거하기 보다는 별거하기를 선호한다는 점임. 이러한 특성은 제주지역의 주거문화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음. 제주의 ‘밖거리’, ‘안거리’ 주거문화에 대하여 김태현(1994)은 경제적, 정신적으로 노인과 자녀가 독립된 관계를 형성하여 가족간의 갈등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적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음.
- 제주노인의 장수성은 조선왕조실록을 살펴보면, 80세 이상의 노인이 제주에 가장 많았음을 기록하고 있음. 이러한 장수성은 청정환경의 영향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하겠음.
- 제주노인의 강인성에 대해 김봉옥(1987)은 감물을 들인 갈옷을 입고 띄약벌 아래서 '정당벌립'을 쓰고 자갈밭에 씨를 뿌리며 농사를 짓는 제주노인들의 불굴의 모습은 생각만 해도 강인한 개척의 모습임에 틀림없다고 하였음.
- 제주노인은 문화적인 우월자, 전승자, 인생의 성취자로서의 역할을 갖는데, 이러한 역할은 다른 지역의 노인에 비하여 더 크게 관련되었음. 이러한 특성과 현상들이 바로 제주 노인의 온고성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임.

2) 가족제도 및 가족관계

- 제주도 가족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장남분가와 균분상속의 전통, 부계형 혈연집단의 결속 약화, 조상제사의 분할 등은 한국의 전통적인 가족과는 매우 상이한 모습들임.
- 제주도에는 부녀자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높고, 남녀의 사회적 접촉이 비교적 자유로우며, 이혼과 재혼에 대한 금기의식이 대단히 미약한 것이 사실임. 장례 혹은 혼례과정에 출가한 딸이나 사돈댁 또는 외가친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도 육지의 전통적인 가족과는 다름(최재석, 1979; 김혜숙, 1982; 이창기, 1991).

- 반면, 제주도 가족에서도 전통적인 한국가족에서와 마찬가지로 아들을 중시하는 남아선호의식이 매우 강하며, 조상을 숭배하고 조상제사를 중시하였음. 문중조직이 발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상제사를 장남이 전담하는 곳에서는 종손의식도 뚜렷이 나타나고, 아들이 없을 때는 반드시 양자를 들이려고 노력함(최재석, 1979).
- 이와 같이 제주도는 오랫동안 한반도의 문화권에 속해 있으면서도 가족제도와 친족제도에 대해서는 한국의 전통가족과 맥을 같이하는 부분이 있는 반면, 부계적 요소를 지니고 있으면서 동시에 비부계적 특성도 강하게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가족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하나의 가족이 형성되고 그러한 가족들이 다시 사회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가족공동체는 사회를 이루는데 기본이 되는 최소집단임. 이는 곧 개인의식을 근간으로 가족공동체의식이 형성되고 나아가 사회의식으로 확산됨을 의미함(김혜숙, 1999).
- 제주도는 오랜 기간 동안 부부가족제를 선호하여 왔으며, 그 결과로 장남도 혼인하면 대부분 분가하는 철저한 자립의식을 가질 수 있었음. 이처럼 분가주의가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세대나 자녀세대 모두 이를 당연하게 수용하여 왔음.
- 이러한 분가의식의 저변에는 모든 사고와 행위의 단위가 ‘가(家)’로 집약되는 전통사회의 가족주의와는 전혀 다른 즉, 개인을 단위로 하는 의식이 작용한다고 볼 수 있음.
- 개인을 기본단위로 하려는 의식은 분가주의 외에도 가족제도에서도 발견할 수 있음. 제주도에 일인 가족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는 것 역시, 개인을 단위로 하는 의식에서 출발하였다고 볼 수 있음. 즉, 개인의 자기정체성과 독립성은 물론, 경제적 자립의 기반이 되는 근면성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음.
- 개인의식은 고부관계에서도 살펴볼 수 있음. 세대간 독립된 주거를 유지하며, 가사운영권에서도 자녀들의 살림이 ‘촌살림’이 되고, 시부모에게 노동력과 경제력이 있는 한 서로의 생활영역에 대한 간섭이나 통제 없이 각자 생활함.

- 이러한 개인의식은 시부모 자신도 전통가족에서와 같은 며느리에 대한 기대치가 약하기 때문에 갈등의 정도가 약함. 즉, 부모는 부모대로 또한 자녀는 그들의 삶을 이끌어나가므로, 자녀가 무관심하게 보이는 행동이 불효를 저지르는 행위로 보지 않음.

3) 사회·문화적 환경

- 이창기(1995)는 제주문화를 환경적응론, 주변문화이론, 그리고 외래문화유입설 등으로 설명하였음. 환경적응론은 생태학적 관점의 대표적인 견해로서 문화의 생성과 변용과정에 환경조건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하고, 문화를 인간이 생태계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생성시킨 결과물로 파악함.
- 이러한 입장에서 볼 때, 제주문화는 제주도를 한반도의 문화권에 부속된 변방지대 혹은 주변부로 간주함. 한반도의 중심문화가 지리적으로 고립된 주변지역까지 충분히 확산되지 못하였거나 일단 전파된 문화요소가 중심문화의 변화에 상응하여 변화하지 못함으로써 제주문화의 특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봄.
- 외래문화유입설은 문화의 형성과 변용과정에 선진 문화집단과의 접촉이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점을 강조함. 이러한 입장에서 볼 때, 제주문화의 형성배경을 제주도나 한반도라는 좁은 영역에 국한해서 보지 않고 보다 거시적인 문화전파의 경로를 추적하여 제주문화의 원류를 찾으려고 함.
- 그 밖에 제주문화를 이해하는 시각으로는 도서성이론과 역사적 경험을 중시하는 관점이 있음. 도서성이론은 바다에 고립과 한정된 토지라는 특성을 중심으로 하는 도서성(insularity)의 개념으로, 넓게 보면 환경적응론의 일종으로 볼 수 있지만, 환경적응론이 기후풍토나 자연환경의 직접적 영향을 강조하는 데 비하여 도서성이론은 지리적 고립성을 일차적 요인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 차이점임.

- 역사적 경험을 중시하는 관점은 제주인의 소외된 삶과 심층심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한(恨)의 정서를 해명하고 극복하여 제주인의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시도 속에서 나타남.
- 제주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주문화를 보는 시각과 더불어 제주사회의 내적 환경조건을 검토해야 함. 인간이 환경에 대응하는 방식은 도전, 적응, 그리고 초월의 메커니즘 과정으로 보고 있음(이창기, 1995).
- 도전 메커니즘은 삶을 제약하는 외적인 힘을 없애고 현실의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주체적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음.
- 적응 메커니즘은 주어진 환경조건에 적절히 순응하여 환경에 적합하도록 삶의 방식을 질서지위 하는 소극적인 대응양식임.
- 초월 메커니즘은 삶을 위협하는 외적 강제력의 거대한 힘 앞에서 인간의 한계를 절감하고 현실로부터 탈출하거나 초자연적인 힘에 의탁하여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임.
- 이창기(1995)는 도전, 적응, 그리고 초월의 메커니즘은 제주인의 의식구조와 생활태도를 설명하는 데뿐만 아니라, 물질문화나 관습, 제도 등을 설명하는 데 매우 유용한 설명 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음.

4) 문화시설

- 농어촌 지역의 문화시설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은 경로당임. 제주도 농어촌 지역에서는 경로당이 대개 리 사무소가 위치하는 장소나 그 주변에 건립되는 것이 일반적 현상임.
- 활용도적 측면에서는 주로 60세 이상의 노인층이 실내에서의 담소를 비롯한 TV 시청, 독서(주로 신문과 잡지 읽기), 간단한 건강측정(혈압 및 몸무게 측정 등) 또는 간단한 실내운동을 통한 신체단련 등을 행하며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임.

- 이와 더불어,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각 마을 내에 게이트볼장 시설이 확산되기 시작하였는데, 주로 야외 운동장의 한정된 공간을 활용하여 남성과 여성이 함께 조를 이루어 담소와 경기를 하며 여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유용한 운동시설임.
- 게이트볼장 시설도 마을에 따라 다르기는 하나, 주로 리 사무소가 위치하는 장소나 마을내의 공터 또는 새마을 회관이 위치하는 장소 등 비교적 여러 사람들이 접근하기에 편리한 장소를 선택하여 설치하고 있음(정광중, 2002).

III. 조사결과 및 해석

1. 조사 개요

- 본 연구는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사회적 환경 변화와 더불어 제주 지역의 고령화 현상이 장수노인 증가를 가져온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제주장수마을이 지닌 다양한 특성과 문제점들을 파악하여, 향후 관광자원화의 가능성을 점검하고,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고찰하는데 있음.
- 아울러 본 연구는 장수노인복지 정책에 대한 질적 개선점을 모색하고자 하는 당위성에서 출발함.
- 따라서 제주지역의 장수마을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를 조사대상으로 이들이 인식하는 장수노인 및 장수마을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을 설문조사를 통하여 살펴보고자 하였음.
- 조사대상자는 제주지역의 장수마을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들임.
- 조사원이 조사대상자들을 직접 방문하였고 자료 수집은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직접 (face-to-face) 면접조사가 이루어짐. 면접조사에 의한 최종 분석대상자는 총 601명임.
- 표집방법 (sampling)은 우선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에 있는 장수마을들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마을거주자들의 명단을 입수하여 다시 무작위 표집 (random sampling) 방법에 의해서 최종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였음.
- 자료수집 기간은 2005년 12월 26일 ~12월 28일 사이에 이루어졌음.
- 수집된 자료는 Coding Editing 과정을 거쳐 SPSS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Program)으로 전산 처리함.

2. 조사표본의 지역분포

- 본 연구의 조사표본의 지역분포는 <표 III-1>과 같다. 본 연구의 자료는 총 20개 마을에서 601명의 조사대상자로부터 수집되었음.

<표 III-1> 조사표본의 지역분포

지역	빈도	퍼센트
감산리	28	4.66
강구리	30	4.99
고성2리	30	4.99
광령3리	29	4.83
대흘1리	28	4.66
동상호	27	4.49
동한두기	30	4.99
법호촌	29	4.83
상모리	30	4.99
서광동리	31	5.16
서상호	31	5.16
신도2리	29	4.83
신사수동	29	4.83
신산리	29	4.83
신창리	40	6.66
월구	31	5.16
정실	33	5.49
토평리	29	4.83
하례리	28	4.66
황사평	30	4.99
합계	601	100.00

3.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III-2>와 같음. 조사대상자의 거주지역은 제주시 28.0%, 남제주군 27.7%, 북제주군 25.6%, 그리고 서귀포시 18.7% 순으로 분포되었음.
- 성별은 남성이 52.4%, 여성이 47.6%로 남성 응답자가 여성 응답자보다 다소 많은 분포를 보였음. 연령은 40대에서 50대의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의 46.2%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으며, 60대 이상의 응답자는 20.6%의 분포를 보였음.

- 학력분포를 살펴보면, ‘고등학교(중퇴포함)’인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의 33.9%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으며, ‘전문대학(중퇴포함)’ 이상의 학력을 보인 응답자는 26.4%의 분포를 보였음. 또한 ‘글자를 모른다’와 ‘한글을 겨우 안다’ 각각 1.3%와 4.3%의 분포를 보였음.

<표 III-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일반적 사항		빈도	퍼센트
거주지역	제주시	166	28.0
	서귀포시	111	18.7
	북제주군	152	25.6
	남제주군	164	27.7
성별	여성	284	47.6
	남성	313	52.4
연령	20대	87	14.5
	30대	112	18.7
	40대	142	23.7
	50대	135	22.5
	60대	68	11.4
	70대	36	6.0
	80대 이상	19	3.2
학력	글자를 모른다	8	1.3
	한글을 겨우 안다	26	4.3
	초등학교(중퇴포함)	86	14.4
	중학교(중퇴포함)	117	19.6
	고등학교(중퇴포함)	203	33.9
	전문대학(중퇴포함)	66	11.0
	대학(중퇴포함)	88	14.7
	대학원 이상	4	0.7
직업	농업 및 어업	248	41.5
	생산 및 판매 기능직(운전기사 포함)	50	8.4
	판매 및 서비스업(자영업 포함)	91	15.2
	일반 사무직종	40	6.7
	단순 노무직	20	3.4
	전문·관리직종(공무원 포함)	38	6.4
	기타	57	9.5
	모든 일에서 은퇴	53	8.9
월 평균 수입	30만원 미만	70	11.8
	30만원-49만원	38	6.4
	50만원-99만원	123	20.8
	100만원-149만원	158	26.7
	150만원-199만원	129	21.8
	200-249만원	45	7.6
	250만원-299만원	19	3.2
	300만원 이상	10	1.7

- 직업유형의 분포를 살펴보면, ‘농업 및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가 전체 응답자의 41.5%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판매 및 서비스업(자영업 포함)’ 15.2%, 은퇴한 경우가 8.9%의 분포를 보였음.

- 응답자의 월 평균 수입의 분포를 살펴보면, ‘100만원-149만원’이 전체 응답자의 26.7%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150만원-199만원’ 21.8%, ‘50만원-99만원’ 20.8%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3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전체 응답자 중 1.7%에 해당되었음.

4. 장수마을의 자연 환경

1) 장수 비결

- 조사대상자가 인식하고 있는 장수 비결의 우선순위는 <표 III-3>과 같음. 먼저 장수 비결 1순위 중 ‘깨끗한 공기와 물’이 44.2%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여, 응답자의 대부분이 청정한 자연환경을 중요한 장수 비결로 지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장수 비결 2순위를 살펴보면, ‘늪어도 농사일에 참여해서’, ‘깨끗한 공기와 물’, ‘마음이 편안한 생활’이 각각 16.9%, 16.2%, 16.2% 등의 분포를 보였음. 장수 비결 2순위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청정한 자연환경 외에도 일을 할 수 있는 육체적인 건강과 편안한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는 정신건강을 장수 비결로 지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III-3> 장수 비결

장수 비결	1순위		2순위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깨끗한 공기와 물	265	44.2	97	16.2
마음이 편안한 생활	85	14.2	96	16.2
식생활 습관	66	11.0	85	14.2
제주산 청정 음식물 섭취	56	9.3	87	14.5
늪어도 농사일에 참여해서	50	8.3	101	16.9
마을 주민들과 화목한 공동체 생활	33	5.5	65	10.9
집안내력	28	4.7	30	5.0
마을이 덜 개발되어서	12	2.0	33	5.5
기타	4	0.7	4	0.7
합계	599	100.0	598	100.0

2) 장수 음식

- 조사대상자가 인식하고 있는 장수 음식의 우선순위는 <표 III-4>와 같음. 장수 음식 1순위와 2순위 모두 ‘싱싱한 야채’와 ‘나물 된장국’을 대표적인 장수 음식으로 지적하였음. 반면, ‘삶은 돼지고기’, ‘말고기’, ‘꿩고기’ 등의 육류를 장수 음식으로 응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따라서 조사대상자가 인식하고 있는 대표적인 장수 음식은 지역의 자연환경에서 재배되어 쉽게 섭취가 가능한 신선한 야채임을 알 수 있음.

<표 III-4> 장수 음식

음식	1순위		2순위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싱싱한 야채	229	38.2	217	36.2
나물 된장국	195	32.5	128	21.4
싱싱한 해산물	58	9.7	75	12.5
동네 용천수 물	52	8.7	59	9.8
싱싱한 해초류	49	8.2	55	9.2
삶은 돼지고기	11	1.8	37	6.2
말고기	.	.	9	1.5
꿩고기	2	0.3	5	0.8
기타	4	0.7	14	2.3
합계	600	100.0	599	100.0

3) 자연 환경

- 10년 전과 비교한 마을의 공기와 물에 대한 인식은 <표 III-5>와 같음. 10년 전과 비교하여 마을의 공기와 물이 ‘약간 나빠졌다’라고 하는 인식이 전체 응답자의 45.2%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여, 응답자들은 지역의 자연환경이 과거보다 더 나빠졌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III-5> 10년 전과 비교한 공기와 물

공기와 물	빈도	퍼센트
대단히 나빠졌다	75	12.5
약간 나빠졌다	270	45.2
그저 그렇다	230	38.5
약간 좋아졌다	19	3.2
대단히 좋아졌다	4	0.7
합계	598	100.0

5. 장수마을의 경제적 환경

1) 경제적 환경 인식

- 다른 마을과 비교한 경제적 환경에 대한 인식은 <표 III-6>과 같음. 마을의 경제적 환경을 다른 마을과 비교하였을 때 ‘그저 그렇다’라고 인식하는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의 60.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대체로 못 사는 편이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인식이 22.4%인 반면, ‘약간 좋아졌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인식이 15.2%로 나타나, 마을의 경제적 환경이 다른 마을과 비교하여 좋지 못한 것으로 인식함을 알 수 있음.

<표 III-6> 경제적 환경 인식

경제적 형편	빈도	퍼센트
아주 못 사는 편이다	12	2.0
대체로 못 사는 편이다	134	22.4
그저 그렇다	362	60.4
약간 좋아졌다	91	15.2
합계	599	100.0

2) 소득 원천

- 마을 사람들의 소득 원천은 <표 III-7>과 같음. 마을 사람들의 소득 원천 중 ‘농업’이 74.1%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일반 직장’ 10%, ‘자영업’ 9.7% 등의 순으로 나타나,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농업을 통하여 소득을 획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III-7> 소득 원천

소득원천	빈도	퍼센트
농업	443	74.1
수산업	20	3.3
일반 직장	60	10.0
자영업	58	9.7
기타	17	2.8
합계	598	100.0

3) 경제적 환경 변화 인식

- 마을의 경제적 환경 변화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70년대 이전,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후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음.

(1) 70년대 이전

- 1970년대 이전의 마을의 경제적 환경에 대한 인식은 <표 III-8-1>과 같음. 먼저 70년대 이전 마을의 경제적 환경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먹고 살기 힘들’이 43.17%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 25.18%, ‘농업에만 의존’ 15.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1970년대 이전의 마을의 경제적 환경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음.

<표 III-8-1> 1970년대 이전 경제적 환경

1970년대 이전	빈도	퍼센트
먹고살기 힘들	60	43.17
경제적으로 어려움	35	25.18
농업에만 의존	21	15.11
농업과 수산업	4	2.88
농사로 수익 생김	4	2.88
살만함	4	2.88
그저 그랬음	7	5.04
기타	4	2.88
합계	139	100.00

(2) 70년대

- 1970년대 마을의 경제적 환경에 대한 인식은 <표 III-8-2>와 같음. 1970년대 마을의 경제적 환경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먹고 살기 힘들’ 47.43%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이전보다 나아짐’ 20.0%, ‘농업에만 의존’ 10.8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970년대 이전과 마찬가지로, 1970년대에도 역시 마을의 경제적 환경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어려운 상황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III-8-2> 1970년대 경제적 환경

1970년대	빈도	퍼센트
감귤농사시작	12	6.86
경제개발시작	14	8.00
교통문화변화	5	2.86
먹고 살기 힘들	83	47.43
이전보다 나아짐	35	20.00
농업에만 의존	19	10.86
농업과 수산업	4	2.29
기타	3	1.71
합계	175	100.00

(3) 80년대

○ 1980년대 마을의 경제적 변화에 대한 인식은 <표 III-8-3>과 같음. 1980년대 마을의 경제적 환경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경제력 향상’ 52.0%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어려움’ 15.11%, ‘보통’ 12.44%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1980년대에 들어서 비로소 마을의 경제력이 향상되었다고 하는 경제적 환경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보여주었음. 그러나 아직도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는 인식도 15.11%의 분포를 보였음.

<표 III-8-3> 1980년대 경제적 변화

1980년대	빈도	퍼센트
경제력 향상	117	52.00
어려움	34	15.11
그저그랬음(보통)	28	12.44
사회구조변화	16	7.11
1차산업 종사	16	7.11
농업의 기계화 및 기술화	8	3.56
도로확장	4	1.78
기타	2	0.89
합계	225	100.00

(4) 90년대 이후

○ 1990년대 이후 마을의 경제적 환경에 대한 인식은 <표 III-8-4>와 같음. 1990년대 이후 마을의 경제적 환경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경제력 향상’ 47.42%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도시화 형성’ 15.50%, ‘경제적으로 어려움’ 14.89%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1980년대에 이어 1990년대 이후 마을의 경제적 환경에 대한 인식은 경제력이 향상되었다고 하는 긍정적인 인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그러나 1990년대 이후 마을의 경제적 환경 역시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는 인식도 14.9%의 분포를 보였음.

<표 III-8-4> 1990년대 이후 경제적 환경

1990년대 이후	빈도	퍼센트
경제력향상	156	47.42
도시화형성	51	15.50
경제적으로 어려움	49	14.89
그저 그랬음(보통)	31	9.42
농업의 기계화, 기술화, 품종다양화	16	4.86
경제적 부유, 생활여건 안 좋음	12	3.65
1차 산업 유지	10	3.04
기타	4	1.22
합계	329	100.00

4) 마을의 경제적 발전 방안

○ 마을 사람들이 인식하는 마을의 경제적 발전 방안은 <표 III-9>와 같음. 마을이 경제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많이 지적한 것은 ‘고소득 농작물 재배’로 전체 응답자의 27.0%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새로운 소득원 창출’ 26.5%, ‘마을의 젊은 사람들이 도시로 떠나지 말아야 함’ 20.9%, ‘행정기관이 지역발전계획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추진’ 15.9%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표 III-9> 마을의 경제적 발전 방안

마을의 경제적 발전방안	빈도	퍼센트
고소득 농작물을 재배	160	27.0
마을의 젊은 사람들이 도시로 떠나지 말아야함	124	20.9
새로운 소득원 창출	157	26.5
장수마을로 지정하여 관광지역으로 바꿈	35	5.9
마을에 공장이 들어서야함	14	2.4
행정기관이 지역발전계획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추진	94	15.9
기타	9	1.5
합계	593	100.0

- 따라서 마을 사람들은 고소득 농작물 재배, 새로운 소득원 창출 등 마을의 경제에 직접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마을의 경제적 발전을 위한 행정기관의 계획과 책임 있는 추진도 중요하게 지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6. 장수마을의 사회적 환경

1) 마을의 인심

- 10년 전과 비교한 마을의 인심은 <표 III-10>과 같음. 10년 전과 비교하여 마을의 인심이 ‘그저 그렇다’라는 인식이 51.5%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음. 마을의 인심이 10년 전보다 ‘약간 나빠졌다’는 의견이 30.5%인 반면, ‘약간 좋아졌다’는 의견이 12.8%로 나타나, 마을 사람들은 10년 전보다 마을의 인심이 나빠졌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III-10> 10년 전과 비교한 마을의 인심

인심	빈도	퍼센트
대단히 나빠졌다	28	4.7
약간 나빠졌다	183	30.5
그저 그렇다	309	51.5
약간 좋아졌다	77	12.8
대단히 좋아졌다	3	0.5
합계	600	100.0

2) 어른에 대한 공경심

- 마을 사람들의 어른에 대한 공경심 정도는 <표 III-11>과 같음. 마을 사람들은 어른을 ‘대체로 공경한다’고 하는 의견이 52.8%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여, 대부분 마을의 어른들을 공경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전혀 공경하지 않음’과 ‘대체로 공경하지 않음’이 각각 0.5%와 5.7%로 나타나, 마을의 어른에 대한 공경심에 부정적인 인식 또한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III-11> 어른에 대한 공경심 정도

어른에 대한 공경심	빈도	퍼센트
전혀 공경하지 않음	3	0.5
대체로 공경하지 않음	34	5.7
그저 그렇다	149	25.0
대체로 공경함	315	52.8
아주 공경함	96	16.1
합계	597	100.0

3) 장수 집안

- 마을 사람들이 인식하는 장수하는 집안의 존재 여부는 <표 III-12-1>과 같음. 장수하는 집안이 존재하고 있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의 60.6%로 응답자의 대부분이 마을에 장수하는 집안이 존재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마을사람들이 장수마을로서의 인식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III-12-1> 장수 집안의 여부

장수 집안의 여부	빈도	퍼센트
예	357	60.6
아니오	232	39.4
합계	589	100.0

- 다음으로 장수하는 이유는 <표 III-12-2>와 같음. 장수집안이 장수하는 이유 중 ‘조상대대로 집안내력이다’라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의 30.0%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집안이 화목하다’ 19.6%, ‘좋은 집터에 살고 있다’ 14.3%, ‘자식들이 잘 봉양한다’ 12.9%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따라서 마을 사람들은 장수집안이 장수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집안내력이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III-12-2> 장수 집안의 장수 이유

장수 집안의 장수 이유	빈도	퍼센트
조상대대로 집안내력이다	109	30.0
자식들이 잘 봉양한다	47	12.9
집안이 화목하다	71	19.6
경제적으로 부유하다	9	2.5
좋은 집터에 살고 있다	52	14.3
이웃과 잘 지낸다	39	10.7
특별한 음식을 먹는다	10	2.8
기타	26	7.2
합계	363	100.0

4) 장수 조건 여부

- 마을의 장수 조건 여부는 <표 III-13-1>과 같음. 마을의 장수 조건 여부는 긍정적인 의견이 55.0%로 부정적인 의견 45.0%보다 다소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III-13-1> 장수 조건 여부

장수 조건 여부	빈도	퍼센트
예	321	55.0
아니오	263	45.0
합계	584	100.0

- 다음으로 마을이 장수하기 위한 조건은 <표 III-13-2>와 같음. 마을이 장수하기 위한 조건 중 ‘청정한 자연환경’ 65.0%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마을 분위기’ 13.67%, ‘식생활’ 6.0%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따라서 마을 사람들은 마을이 장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청정한 자연환경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III-13-2> 장수 조건

장수 조건	빈도	퍼센트
청정한 자연환경	195	65.00
마을 분위기	41	13.67
식생활	18	6.00
소일거리 및 운동	17	5.67
마음가짐	12	4.00
시설	6	2.00
취미 및 여가활동	5	1.67
기타	6	2.00
합계	300	100.00

7. 장수마을의 문화적 환경

1) 장수노인을 위한 행사

- 장수노인을 위한 마을의 행사는 <표 III-14>와 같음. 17개 마을로부터 장수노인을 위한 마을의 행사내용을 수집하였음. 대부분의 마을에서는 장수노인을 위한 행사로 경로잔치, 효도관광, 어버이날 행사, 신년하례식 등을 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장수노인의 특성이나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은 찾아 볼 수 없었음.

<표 III-14> 장수노인을 위한 마을 행사

마을 명	행사내용
감산리	경로잔치, 효도관광, 신년하례식, 어버이날 행사, 중추절행사, 사물놀이, 매주 노인복지회관에서 식사와 오락, 강연, 취미활동
강구리	정기적 건강검진 실시, 경로잔치
고성2리	정기적 건강검진 실시, 어버이날 행사, 마을잔치
광령3리	경로잔치, 어버이날 행사
대흘1리	경로잔치, 한방치료, 한달에 한번 식사 대접
동상호	경로잔치, 마을동민 단합대회, 한달에 한번 식사 대접, 어버이날 행사, 신년하례식
동한두리	1년에 1-2회 노인들을 위한 운동회
법호촌	분기별 경로잔치, 어버이날 행사, 신년하례식, 마을가요제
상모리	신년하례식, 게이트볼 대회, 경로잔치, 효도관광
성광동리	경로잔치, 게이트볼 대회
서상호	경로잔치, 신년하례식, 매주 식사대접
신도2리	경로잔치, 게이트볼 대회, 효도관광
신사수동	경로잔치, 마을체육대회 참석, 명절 때 선물 드림
신산리	경로잔치
신창리	경로잔치, 벚꽃축제 관람, 효도관광, 무료의료지원, 노인공경 프로그램
월구	경로잔치, 게이트볼, 무료의료지원, 마을축제
정실	경로잔치, 효도관광, 노래잔치, 무료의료지원, 음식 나눠주기

2) 마을의 역사적 전설 및 신화

- 장수에 관한 마을의 역사적 전설 및 신화 유무는 <표 III-15-1>과 같음.
대부분의 마을사람들은 장수에 관한 마을의 역사적 전설이나 신화가 없다고 응답하였음.

<표 III-15-1> 역사적 전설 및 신화 유무

역사적 전설 및 신화 유무	빈도	퍼센트
예	38	6.6
아니오	536	93.4
합계	574	100.0

- 다음으로 장수에 관한 마을의 역사적 전설 및 신화는 <표 III-15-2>와 같음.
 두 개 마을로부터 장수마을에 관한 마을의 역사적 전설 및 신화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었음. 동한두 마을의 경우는 용연사 돌하르방이 장수를 가져다 준다고 하는 내용이 있었으며, 강구리 마을의 경우는 마을이 거북이처럼 생겨 십장생에 포함되는 거북이가 마을의 장수를 가져다준다고 하는 내용이 있었음.

<표 III-15-2> 역사적 전설 및 신화

마을명	역사적 전설 및 신화 내용
동한두	1. 용연사 돌하르방에게 빌면 장수함 2. 용연사 돌하르방 저승사자가 마을에 오지 못하도록 막아줌
강구리	1. 물'강'자, 거북'구'자로 십장생이 포함 2. 마을이 거북이처럼 생겨 오래 삼

3) 마을의 문화적 시설

<표 III-16> 마을의 문화적 시설

지역	문화시설
감산리	노인복지회관, 새마을문고,
강구리	마을회관
고성2리	노인회관, 마을회관, 게이트볼장
광령3리	노인회관, 마을회관, 게이트볼장
대흥1리	노인복지회관, 보건소
동상호	노인복지회고나, 마을회관, 교회
동한두기	노인회관, 마을회관, 문화의집, 연합청년회관
법호촌	노인회관
상모리	마을회관
서광동리	양로원
서상호	노인회관, 마을회관, 교회, 보건소
신도2리	노인회관, 마을회관, 게이트볼장, 교회, 소인국테마파크
신사수동	노인회관, 마을회관, 청년회관, 문화의집, 복지회관
신산리	노인회관, 마을회관, 교회, 보건소
신창리	노인회관, 마을회관, 게이트볼장
월구	노인회관, 마을회관
정실	노인회관, 마을회관, 노인회관, 마을회관, 마을도서관, 청소년문화회관, 체육시설
토평리	노인회관, 마을회관, 보건소, 체육공원, 역사문화유적지, 청소년문화센터
하례리	노인회관, 마을회관, 보건소
황사평	노인회관, 마을회관, 황사평 성지

- 마을의 문화적 시설은 <표 III-16>과 같음. 마을의 문화적 시설을 살펴 보면, 마을마다 문화적 시설에 차이를 보이기는 하였으나, 대부분 마을 회관과 노인회관이 대부분으로 다양한 문화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반면, 동한두기, 신사수동, 정실, 토평리의 경우는 마을회관, 노인회관 외에 마을도서관, 체육시설, 청소년문화회관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8. 장수마을 보존

1) 장수 여건 변화

- 10년 전에 비하여 마을이 장수할 수 있는 여건 변화에 대한 인식은 <표 III-17-1>과 같음. 마을 사람들은 10년 전에 비하여 마을이 장수할 수 있는 여건이 ‘그저 그렇다’라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의 39.4%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음. 마을이 장수할 수 있는 여건이 ‘약간 악화되었다’는 의견이 34.1%인 반면, ‘약간 좋아졌다’는 의견이 13.5%로 나타나, 마을 사람들은 10년 전에 비하여 마을이 장수할 수 있는 여건에 대하여 다소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III-17-1> 장수 여건 변화

장수 여건의 변화	빈도	퍼센트
대단히 악화되었다	60	10.0
약간 악화되었다	204	34.1
그저 그렇다	236	39.4
약간 좋아졌다	81	13.5
대단히 좋아졌다	18	3.0
합계	599	100.0

- 다음으로 마을이 장수할 수 있는 여건이 나빠진 이유는 <표 III-17-2>와 같음. 마을이 장수할 수 있는 여건이 나빠진 이유 중 자동차 매연으로 공기가 나빠졌다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의 33.1%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마을의 전통적 생활방식이 사라짐’ 19.4%, ‘동네 용천수 및 지하수 오염’ 14.0%, ‘인스턴트식품의 구매’ 11.6%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따라서 마을 사람들은 마을이 장수할 수 있는 여건이 나빠진 가장 큰 이유를 청정했던 공기가 나빠졌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III-17-2> 장수 여건이 나빠진 이유

장수여건이 나빠진 이유	빈도	퍼센트
자동차 매연으로 공기가 나빠짐	166	33.1
동네 용천수 및 지하수 오염	70	14.0
마을사람들의 인심이 나빠짐	30	6.0
마을의 전통적 생활방식이 사라짐	97	19.4
각종 노약살포의 증가	46	9.2
인스턴트식품의 구매	58	11.6
기타	34	6.8
합계	501	100.0

2) 장수의 부정적 요소

- 장수의 부정적 요소는 <표 III-18>과 같음. 장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자연환경파괴’가 49.87%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여, 마을사람들은 마을의 자연환경을 변화시키고 파괴하는 것이 마을이 장수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III-18> 장수의 부정적 요소

장수의 부정적 요소	빈도	퍼센트
자연환경파괴	193	49.87
각박한 생활	59	15.25
식습관	21	5.43
마을인구노령화	20	5.17
농약사용	18	4.65
시설부족	10	2.58
없음	37	9.56
모르겠음	17	4.39
기타	12	3.10
합계	387	100.00

3) 장수마을 보존 여부

- 장수마을의 보존 여부는 <표 III-19>와 같음. 장수마을이 보존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의 84.1%로 대부분의 응답자가 장수마을은 보존되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III-19> 장수마을의 보존 여부

장수마을의 보존여부	빈도	퍼센트
예	498	84.1
아니오	94	15.9
합계	592	100.0

4) 장수마을 보존의 주체

- 장수마을 보존의 주체에 대한 인식은 <표 III-20>과 같음. 장수마을을 보존하는 주체 중 ‘마을 사람 스스로’ 47.3%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시군 행정기관’ 23.2%, ‘도 행정기관’ 16.8%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따라서 마을사람들은 마을 사람들 스스로가 장수마을 보존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의식을 대부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반면, 행정기관이 주체가 되어 장수마을을 보존해야 한다는 의견 또한 40.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III-20> 장수마을 보존의 주체

장수마을 보존의 주체	빈도	퍼센트
도 행정기관	85	16.8
시군 행정기관	117	23.2
마을사람 스스로	239	47.3
장수관련 연구소	21	4.2
노인복지기관	23	4.6
시민사회단체	18	3.6
기타	2	0.4
합계	505	100.0

5) 장수마을 보존 방법

- 장수마을 보존 방법은 <표 III-21>과 같음. 장수마을을 보존하는 방법 중 ‘행정기관이 중장기 보존 계획을 수립하여 한다’와 ‘마을사람들이 의논한 결과에 따른다’가 각각 38.7%와 32.4%로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였음. 따라서 마을사람들은 행정기관의 장수마을 보존계획과 마을사람들의 의견이 병행하는 방법을 통하여 장수마을을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III-21> 장수마을 보존 방법

장수마을 보존방법	빈도	퍼센트
마을사람들이 의논한 결과에 따른다	165	32.4
행정기관이 중장기 보존 계획을 수립하여 한다	197	38.7
타 시도 장수 마을을 본받아서 한다	48	9.4
해외 장수 마을을 본받아서 한다	5	1.0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연구 조사한 결과에 따른다	38	7.5
현재 있는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다	53	10.4
기타	3	0.6
합계	509	100.0

6) 장수마을 보존을 위한 중요한 방법

- 장수마을 보존을 위한 중요한 방법은 <표 III-22>와 같음. 장수마을을 보존하기 위하여 중요한 방법 중 ‘마을 사람들의 의지가 중요하다’라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의 42.1%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여, 장수마을을 보존하는데 있어서 마을 사람들의 의지와 적극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한 방법임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 다음으로 ‘행정기관의 예산지원이 중요하다’라는 의견이 19.0%, ‘장수마을의 훼손이 억제되어야 한다’라는 의견이 17.5%, ‘장수마을에 대한 기초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11.3%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표 III-22> 장수마을 보존을 위한 중요한 방법

장수마을 보존을 위한 중요한 방법	빈도	퍼센트
마을 사람들의 의지가 중요하다	217	42.1
행정기관의 예산지원이 중요하다	98	19.0
장수마을에 대한 기초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58	11.3
장수마을 지정이 시급하다	19	3.7
장수마을의 훼손이 억제되어야 한다	90	17.5
장수마을을 홍보해야 한다	31	6.0
기타	2	0.4
합계	515	100.0

7) 장수를 위한 우선순위

- 마을 어르신들의 장수를 위한 우선순위는 <표 III-23>과 같음. 먼저 1순위를 살펴보면, ‘노인 스스로 건강을 관리한다’라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의 37.2%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행정기관이 노인들의 의료보험 혜택을 강화한다’ 25.8%, ‘마을에 장수노인들을 위한 특별시설을 갖춘다’ 12.2%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따라서 마을 어르신들이 장수하기 위해서는 노인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것과 더불어 의료보험 혜택을 강화하는 것을 중요한 우선순위로 지적하였음.
- 2순위를 살펴보면, ‘마을에 장수노인들을 위한 특별시설을 갖춘다’라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의 27.4%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행정기관이 노인들의 의료보험 혜택을 강화한다’ 19.1%, ‘장수노인에 대한 지원금을 대폭 인상한다’ 14.0%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따라서 마을 어르신들이 장수하기 위해서는 장수노인의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의료보험 혜택을 강화하는 것을 중요한 우선순위로 지적하였음.
- 마을 어르신들의 장수를 위해서는 장수노인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것과 더불어 의료보험 혜택을 강화시키는 것, 그리고 장수노인의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 우선순위로 지적하였음.

<표 III-23> 장수를 위한 우선순위

장수를 위한 우선순위 내용	1순위		2순위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노인 스스로 건강을 관리한다	222	37.2	56	9.5
행정기관이 노인들의 의료보험 혜택을 강화한다	154	25.8	112	19.1
자녀가 나이 많은 부모를 직접 모신다	21	3.5	24	4.1
장수노인에 대한 지원금을 대폭 인상한다	56	9.4	82	14.0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34	5.7	61	10.4
장수노인 관련 법을 제정한다	19	3.2	26	4.4
마을에 장수노인들을 위한 특별시설을 갖춘다	73	12.2	161	27.4
장수노인을 보호하고 관리할 가정복지사가 필요하다	14	2.3	64	10.9
기타	4	0.7	1	0.2
합계	597	100.0	587	100.0

8) 장수노인을 위한 시설

- 장수노인을 위한 시설은 <표 III-24>와 같음. 장수노인을 위한 시설 중 ‘보건센터 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의 21.2%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공중목욕탕 시설’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문화시설’이 각각 15.5%, ‘노인들이 소일할 수 있는 문화시설’ 14.0%, ‘냉난방 시설이 잘 된 쉼터 시설’ 13.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마을 사람들은 장수노인을 위한 시설 중 의료 및 보건시설을 갖추는 것을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외에도 위생시설, 여가시설, 문화시설 등 다양한 시설들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III-24> 장수노인을 위한 시설

장수노인을 위한 시설	빈도	퍼센트
공중목욕탕 시설	92	15.5
냉난방 시설이 잘 된 쉼터 시설	79	13.3
운동을 할 수 있는 헬스시설	59	9.9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문화시설	92	15.5
노인들이 소일할 수 있는 문화시설	83	14.0
보건센터 시설	126	21.2
장기요양보호 시설	56	9.4
기타	6	1.0
합계	593	100.0

9) 장수마을 인지도

- 장수마을 인지도는 <표 III-25-1>과 같음. 장수마을에 대한 인지도는 모른다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의 72.3%로 대부분의 응답자가 장수마을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III-25-1> 장수마을 인지도

장수마을 인지도	빈도	퍼센트
예	164	27.7
아니오	429	72.3
합계	593	100.0

- 다음으로 장수마을 인지 경로는 <표 III-25-2>와 같음. 장수마을에 대한 인지 경로 중 ‘동네에 오래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라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의 46.4%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마을사람들의 입소문으로 들어서’ 30.9%, ‘신문방송에서 보도하니까’ 15.5%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표 III-25-2> 장수마을 인지 경로

장수마을 인지수단	빈도	퍼센트
마을에 역사적 기록이 있기 때문에	6	3.3
마을사람들의 입소문으로 들어서	56	30.9
동네에 오래 사는 사람이 많아서	84	46.4
신문방송에서 보도하니까	28	15.5
잡지나 책에서 보아서	1	0.6
기타	6	3.3
합계	181	100.0

10) 장수마을 보존을 위한 접근 방식

- 장수마을 보존을 위한 접근 방식은 <표 III-26>과 같음. 장수마을을 보존하기 위한 접근 방식 중 ‘마을을 중심으로’라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의 45.5%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지역사회 중심으로’ 22.0%,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18.6%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따라서 마을 사람들은 장수마을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마을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하였음.

<표 III-26> 장수마을 보존을 위한 접근 방식

장수마을 보존의 접근방식	빈도	퍼센트
마을 중심으로	271	45.5
지역사회 중심으로	131	22.0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111	18.6
중앙정부 중심으로	52	8.7
언론 및 방송 여론에 따라서	18	3.0
기타	13	2.2
합계	596	100.0

11) 장수마을 발전을 위하여 중요한 점

- 장수마을 발전을 위하여 중요한 점은 <표 III-27>과 같음. 장수마을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중요한 점은 ‘마을주민들의 협력’이라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의 37.7%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젊은이들의 관심과 노력’ 21.4%, ‘마을에 보존위원회의 구성’ 20.0%, ‘지자체와의 협력관계’ 13.8%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따라서 장수마을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마을주민들의 협력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III-27> 장수마을 발전을 위하여 중요한 점

장수마을 발전을 위하여 중요한 점	빈도	퍼센트
마을주민들의 협력	224	37.7
마을에 보존위원회의 구성	119	20.0
마을 지도자의 리더십	22	3.7
젊은이들의 관심과 노력	127	21.4
지자체와의 협력관계	82	13.8
마을주민들의 선진사례 연수	14	2.4
기타	6	1.0
합계	594	100.0

12) 장수마을 발전을 위한 지자체의 지원책

- 장수마을 발전을 위한 지자체의 지원책의 우선순위는 <표 III-28>과 같음. 장수마을 발전을 위한 지자체의 지원책 중 1순위를 살펴보면, ‘마을 발전 기본계획 수립’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의 25.9%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장수노인들을 위한 지원금 증액’ 22.7%, ‘장수마을로 공식 지정’ 20.7%, ‘장수노인들을 위한 복지시설 마련’ 18.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장수마을 발전을 위해서 지자체는 마을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하였음.

<표 III-28> 장수마을 발전을 위한 지자체의 지원책

지자체의 지원책	1순위		2순위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장수마을로 공식 지정	124	20.7	53	8.9
마을 발전 기본계획 수립	155	25.9	71	12.0
장수노인들을 위한 지원금 증액	136	22.7	109	18.4
가정복지사 파견	23	3.8	47	7.9
장수노인 보호 조례 제정	32	5.4	57	9.6
장수노인들을 위한 복지시설 마련	110	18.4	223	37.6
마을을 관광지역으로 만들	15	2.5	29	4.9
기타	3	0.5	4	0.7
합계	598	100.0	593	100.0

- 장수마을 발전을 위한 지자체의 지원책 중 2순위를 살펴보면, ‘장수노인들을 위한 복지시설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의 37.6%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장수노인들을 위한 지원금 증액’ 18.4%, ‘마을 발전 기본 계획 수립’ 12.0%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따라서 장수마을 발전을 위하여 지자체는 장수마을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과 더불어 장수노인들을 위한 복지시설을 마련하는 것을 시급한 과제로 지적하였음.

13) 장수마을 발전을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책

- 장수마을 발전을 위한 중앙정부의 우선적 지원책은 <표 III-29>와 같음. 장수마을 발전을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책 중 ‘장수마을을 지원하는 국비를 책정한다’라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의 35.2%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장수마을 발전기본계획을 세운다’ 33.0%, ‘장수마을 관련법을 제정한다’ 13.0%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따라서 마을사람들은 장수마을 발전을 위한 중앙정부의 우선적 지원책으로 장수마을 지원을 위한 국비 책정과 장수마을 발전 기본 계획 수립을 지적하였음.

<표 III-29> 장수마을 발전을 위한 중앙정부의 우선적 지원책

중앙정부의 우선적 지원책	빈도	퍼센트
장수마을 관련법을 제정한다	78	13.0
장수마을을 지원하는 국비를 책정한다	211	35.2
장수마을을 관광특구로 지정한다	50	8.3
장수마을발전기본계획을 세운다	198	33.0
장수마을보존특별위원회를 만든다	54	9.0
기타	9	1.5
합계	600	100.0

IV. 연구결과 요약 및 정책적 제언

- 본 연구의 목적은 고령사회의 도래와 더불어 제주지역 장수마을의 물리적 환경, 사회적 환경, 그리고 생활문화 환경들을 파악하여 장수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아울러 장수마을 노인들의 생활실태와 문제점들 파악하여 향후 장수마을의 관광자원화 및 문화관광 체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함.
- 본 절에서는 실증적 자료 분석결과 나타난 제주지역 장수노인 및 장수마을의 실태 및 문제점에 대한 주요 내용을 요약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제주 장수마을의 발전 방향과 과제를 제언하고자 함.

1. 연구결과 요약

가. 일반적 특성

- 1) 조사대상자의 성별 분포를 보면, 남성이 52.4%(313명), 여성이 47.6%(284명)으로 나타남.
- 2) 조사대상자의 거주지역은 제주도 28.0%, 서귀포시 18.7%, 북제주군 25.6% 남제주군 27.7% 분포를 보이고 있음.
- 3) 조사대상자의 학력 분포를 보면, 고등학교(중퇴 포함) 졸업이 33.9%, 중학교(중퇴포함) 19.6%, 대학(중퇴포함) 14.7%, 초등학교(중퇴포함) 14.4%, 전문대학(중퇴포함) 11.0%, 그리고 한글을 겨우 아는 경우가 4.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4) 응답자의 직업유형을 보면, 농업 및 어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전체 응답자의 41.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판매 및 서비스업 (자영업 포함) 15.2%, 그리고 은퇴한 경우가 6.9%의 분포를 보임.
- 5) 응답자의 월평균 수입 분포는 100만원~149만원이 26.7%로 가장 높게 나타

났고, 그 다음으로 150만원~199만원 21.8%, 그리고 50만원~99만원이 20.8% 등의 순으로 나타남. 특히 300만원 이상의 경우는 전체 응답자 중 1.7%에 불과하여 조사대상자들의 경제적 소득이 비교적 적은 것으로 나타남.

나. 장수마을의 자연환경

- 1) 조사대상자가 인지하는 마을의 장수비결의 1순위는 깨끗한 공기와 물이 44.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마음이 편안한 생활 14.2%, 그리고 식생활 습관 11.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 10년 전과 비교하여 마을의 공기와 물이 나빠졌다고 인식한 응답 비율은 57.7%로 나타나 자연환경이 오염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음.

다. 장수마을의 경제적 환경

- 1) 마을의 경제적 환경을 다른 마을과 비교하였을 때 그저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60.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대체로 못사는 편이다 22.4%, 그리고 약간 좋아졌다가 15.2% 순으로 나타남.
- 2) 마을 사람들의 소득 원천 가운데 농업이 74.1%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일반 직장 근무 10.0%, 그리고 자영업이 9.7%로 마을의 소득을 가져 올 수 있는 소득원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지 못함.
- 3) 마을의 경제적 환경 변화와 관련해서는 70년대 이전에는 상당수 응답자들이 먹고 살기 힘들었다는 비율이 68.4%를 차지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음을 알 수 있음.
- 4) 70년대에는 먹고살기 힘들었다는 응답비율이 47.4%를 차지하였고 70년대 비하여 생활형편이 나아졌다는 경우가 20.1%로 나타났는데 70년대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밀감재배가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음.
- 5) 조사응답자들은 80년대의 경제적 상황에 대해서는 과거에 비하여 경제적으로 향상되었다는 응답 비율이 52.0%를 차지하여 70년대 보다는 훨씬 나아졌다고 인식하고 있음.

- 6) 90년대 이후 응답자의 경제적 환경에 대한 인식은 경제적 생활 정도가 향상되었다는 응답이 47.4%로 나타났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경우도 14.9%를 차지하고 있음. 특히 응답자들은 도시화 및 농업의 상업화가 확산되면서 경제적 변화 그리고 농업의 기계화 및 품종 다양화 등에 커다란 관심을 보였음.
- 7) 마을의 경제적 발전 방안과 관련하여 응답자들은 고소득 농작물 재배 27.0%, 새로운 소득원 창출 26.5%, 마을의 젊은이들이 도시로 떠나지 말아야 하는 경우가 20.9%, 그리고 행정기관이 지역발전계획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응답비율이 15.9%를 차지하고 있음.

라. 장수마을의 사회적 환경

- 1) 응답자들은 10년 전과 비교하여 마을의 인심이 그저 그렇다라는 인식이 51.5%로 나타났고, 나빠졌다는 35.2%를 차지하고 있음. 반면에 마을 인심이 좋아졌다는 응답비율은 13.3%로 나타남.
- 2) 마을 사람들의 어른에 대한 공경심 정도는 공경하고 있다는 응답이 68.9%로 나타나고 있지만, 공경하고 있지 않다는 경우도 6.2%를 차지하고 있음.
- 3) 전체 응답자들 가운데 60.6%가 마을에는 장수하는 집안이 존재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데 이는 장수하는데 유전적 요인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음.
- 4) 마을의 장수집안에서 장수하는 이유가 있는지와 관련하여 조상대대로 집안내력이다가 30.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집안의 화목 19.6%, 좋은 집터에 거주 14.3%, 자식들이 잘 봉양 12.9%, 그리고 특별한 음식 섭취가 7.2% 순으로 나타남.
- 5) 응답자의 절반 이상(55.0%)이 마을의 장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45.0%는 그렇지 않다는 것임.
- 6) 마을의 장수 조건과 관련하여, 청정한 자연환경 65.0%로 가장 높게 나

타났고, 마을 분위기 13.7%, 식생활 6.0%, 소일 거리 및 운동이 5.7% 등의 순으로 나타남.

마. 장수마을의 문화적 환경

- 1) 대부분의 장수마을에서는 장수노인을 위한 행사로 경로잔치, 효도관광, 어버이날 행사, 신년하례식 등을 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장수노인의 특성이나 욕구를 반영한 행사는 전혀 없음.
- 2) 응답자의 절대 다수 (93.4%)가 마을에는 장수와 관련된 역사적 전설 및 신화가 없다고 응답함.
- 3) 마을의 문화적 시설과 관련해서 마을회관과 노인회관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다양한 문화시설을 갖추고 있지 못함. 특정 마을에는 마을회관과 노인회관 이외에 마을도서관, 체육시설, 청소년문화회관, 게이트볼장 등이 있음.

바. 장수마을의 보존

- 1) 마을사람들이 10년에 비하여 마을이 장수할 수 있는 여건이 나빠졌다는 응답 비율이 44.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저 그렇다 39.4%, 그리고 좋아졌다가 16.5%로 순으로 나타남.
- 2) 마을이 장수할 수 있는 여건이 나빠진 이유로는 자동차 매연으로 공기가 나빠졌다는 의견이 33.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마을의 전통적 생활방식이 사라짐 19.4%, 동네 용천수 및 지하수 오염 14.0%, 그리고 인스턴트식품의 구매가 11.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3) 마을의 장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가운데 자연환경 파괴가 49.9%로 가장 높고, 각박한 생활 15.3%, 식습관의 변화 5.4%, 농약사용 4.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4) 장수마을은 보존되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84.1%를 차지함.
- 5) 장수마을을 보존하는데 그 주체가 '마을 사람 스스로'가 47.3%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시·군 행정기관 23.2%, 도 행정기관 16.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6) 장수마을을 보존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이 중·장기 보존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가 38.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마을사람들이 논의할 결과에 따르는 방법 32.4%, 현재 있는 상태로 그대로 유지하는 방법 10.4%, 타 시·도 장수마을을 벤치마킹하는 방법 9.4%, 그리고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여 보존방법을 강구하는 경우가 7.5% 순으로 나타남.
- 7) 장수마을을 보존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들 가운데 42.1%가 마을 사람들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이고, 행정기관의 예산지원이 중요하다는 19.0%, 장수마을의 훼손이 억제되어야 한다는 17.5%, 그리고 장수마을에 대한 기초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11.3%, 장수마을을 홍보해야 한다는 6.0%, 그리고 장수마을 지정이 시급하다는 3.7% 순으로 나타남.
- 8) 마을의 노인들이 장수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먼저 노인 스스로 건강을 관리해야 한다는 37.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행정기관이 노인들의 의료보험 혜택을 강화해야 한다는 25.8%, 그리고 장수노인들을 위한 특별시설을 갖춘다는 12.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9) 장수노인을 위한 시설로는 보건센터 시설이 21.2%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공중목욕탕 시설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문화시설이 각각 15.0%, 노인이 소일 할 수 있는 시설 14.0%, 냉난방 시설이 잘된 쉼터 시설 13.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10) 장수마을 거주자들 가운데 자신의 마을이 장수마을임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27.7%에 그쳐 대다수 마을사람들이 장수마을을 인지하고 있지 못한 실정임.
- 11) 장수마을에 대한 인지경로와 관련해서 전체 응답자 가운데 46.4%가 ‘동네에 오래 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라고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마을사람들의 입소문으로 들어서 30.9%, 신문방송에서 보도하니까 15.5%, 그리고 마을에 역사적 기록이 있어서가 3.3% 순으로 나타남.

- 12) 장수마을 보존을 위한 접근 방식과 관련하여 응답자들은 마을을 중심으로가 45.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지역사회 중심으로 22.0%,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18.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13) 장수마을 발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점은 마을주민들의 협력이 전체 응답자의 37.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젊은이들의 관심과 노력 21.4%, 마을에 장수마을보존위원회 구성 20.0%, 그리고 지자체와의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일 13.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14) 장수마을 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지자체의 지원책과 관련하여 전체 응답자들 가운데 25.9%가 마을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지원을 원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장수노인들을 위한 지원금 증액 22.7%, 장수마을로 공식지정 20.7%, 장수노인들을 위한 복지시설 마련 18.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15) 장수마을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 단체가 지원해 주어야할 분야들 가운데 2순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지원 사항은 장수노인들을 위한 복지시설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의 37.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 장수노인들을 위한 지원금 증액 18.4%, 그리고 마을발전기본계획 수립이 12.0% 순으로 나타남.
- 16) 장수마을 발전을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책 중 장수마을을 지원하는 국비를 책정한다라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의 35.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장수마을발전기본계획을 세운다 33.0%, 장수마을 관련법을 제정한다 13.0%, 장수마을보존특별위원회를 만든다 9.0%, 그리고 장수마을을 관광특구로 지정한다가 8.3% 순으로 나타남.

2. 정책적 제언

가. 장수마을의 자연환경

- 장수마을이 지닌 깨끗한 물과 공기가 가장 중요한 장수요인으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장수마을의 자연환경을 지속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마을발전전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개발허가 및 제한에 관한 법적·제도적 기틀을 마련해야 함.
- 장수마을을 개발하는 경우는 환경영향평가를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여 개발로 인한 부정적 결과를 최소화하여야 할 것임.
- 장수마을 자연환경 보존을 위해서 가칭 「장수마을환경보존위원회」 혹은 「장수마을환경보존연구회」를 설립하여 제도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존할 필요성이 있음.
- 장수마을의 자연환경은 건축, 경관, 고도제한, 도로포장, 자동차 이용 등을 포함한 다양한 부분들에 대하여 환경보존과 관련하여 종합적 검토가 요구됨.

나. 장수마을의 경제적 생활환경

- 장수마을의 대다수 주민들이 농업 및 어업에 종사하고 있어서 향후 마을이 발전하려면 농업 및 어업 분야의 발전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임. 그래서 농업 및 어업부문의 1차 산업발전은 마을 차원 뿐 만 아니라 지자체 차원에서 마을별로 산업구조 특성을 근거로 하여 마을 단위별 경제발전계획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장수마을의 소득수준이 평균적으로 낮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마을주민들이 소득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함. 특히 마을단위에서 고소득 작물재배, 새로운 소득원 창출, 노동력의 고령화 현상 방지, 행정기관에 의한 마을발전계획수립 등에 일차적으로 관심을 둘 필요가 있음.

- 장수마을의 관광자원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문화관광체험 마을로 육성 발전시키거나 혹은 장수마을에서 생산하는 장수식품이나 농·축·해산물에 대한 가치 「장수마을생산인증제」를 실행하여 유기농 생산을 통한 마을의 고소득 창출하는 방안을 강구함.

다. 장수마을의 사회적 환경

- 장수마을에서 장수노인들이 후손들에게 전해주는 삶의 방식과 지혜들이 현대인들에게 소중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장수마을에 문화체험공간을 마련하여 효과 예절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장수마을에서 장수내력을 가진 집안을 널리 홍보하고, 장수가족들의 삶의 방식을 배울 수 있는 체험을 갖게 하고, 특히 식생활문화 연구는 장수요인에 중요하므로 제주지역의 전통음식 및 장수식품을 연구하는 가치 「제주장수식품연구센터」를 설립하여 기존의 대학식품연구소와의 네트워크 협력체제 구축이 필요함.
- 장수마을의 관광자원화를 위해서 지자체 차원에서 홍보사업에 진력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관광코스로 정하여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꼭 찾아가는 관광지역으로 정할 필요성이 있음.
- 장수마을에 거주하는 장수노인들에 대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장수와 관련하여 소득, 건강, 부양, 여가활동, 수발, 등에 대한 자료를 각 개인별로 DB화 할 필요가 있음.
- 장수노인들의 노인전문병원 이용을 무료화하고, 그리고 장수노인들의 병원이용 접근성을 고려하여 향후 노인전문병원센터 이용에 대한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장수노인들이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장수마을이 위치한 읍·면·동의 지역보건소에서 제공하는 의료 및 보건서비스의 질적 서비스를 대폭 개선할 필요가 있음.

마. 장수마을의 문화적 환경

- 제주지역의 장수마을에는 마을회관과 노인회관이 대부분이어서 장수여건을 개선하거나 장수노인들이 더 건강하게 생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예컨대, 운동, 건강, 보건, 취미, 여가, 은행업무, 물품구입 등) 시설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제주장수마을에는 경로잔치, 효도관광, 신년하례식, 어버이날 행사 등이 의례적으로 열리는 대신에 장수노인에 대한 행사는 거의 없음. 따라서 제주백세인 축제, 장수부부 전통회혼례 및 학술 심포지움을 정기적으로 개최할 필요성이 있음.
- 국내 및 해외 장수마을과의 교류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제주와 국내 및 외국의 장수노인들 간의 상호방문 및 실버문화행사를 개최할 필요가 있음.

바. 장수마을의 보존 방향

- 장수마을의 청정 환경(특히 물, 공기)을 일차적으로 보존하고, 마을의 전통적 생활방식을 복원하고 보존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장수노인들이 즐겨 먹는 음식에 대한 지속적 연구 및 보존이 중요함.
- 장수마을의 보존은 관주도형 보다는 주민 및 마을중심의 상향식 접근에 바탕을 둘 필요가 있음. 과거처럼 행정기관에서 지도·감독하면 장수마을 보존이 관주도형으로 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임. 대신에 행정기관은 마을주민 스스로 보존하는데 열의와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행정 및 예산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 장수마을을 보존하는 일차적 과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장수마을 중·장기 보존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장수마을에 대한 일시적 행정 및 재정지원의 접근방식을 탈피하여야 함.
- 장수마을에 대한 개발과 보존은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접근에서 출발하여야 함. 장수마을은 원칙적으로 무분별한 개발보다는 보존하는 방향에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장수마을의 보존은 개방적 접근에 바탕을 두어 외부인(특히 관광객)의 방문을 수용하여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장수노인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수마을이 위치한 읍·면·동 지역에 가칭 「제주장수노인종합건강센터」를 설립하여 장수노인의 건강문제와 관련하여 질병 상담, 진단 및 치유할 수 있는 의료체제 구축이 바람직함.
- 또한 장수노인은 건강보험에서 모든 질병의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고 가칭 「제주장수노인증록증」을 발급할 필요가 있음.
- 장수마을 보존사업은 마을 중심 혹은 지역사회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가칭 「장수마을보존특별위원회」를 설립하여 장수마을에 대한 「마을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여 실행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장수마을에 장수노인복지서비스 시설을 확충하는 방향에서 장수마을 보존이 검토되어야 함.
- 장수마을의 장수노인복지서비스는 장수노인-장수마을-지역사회-행정기관-사회복지기관(자원봉사자, 가정과건봉사원)-보건·의료기관-연구기관 등의 네트워크 협력체제 속에서 원스톱(One-Stop)으로 운영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 제주지역의 장수마을에 대한 일반적 정보는 마을별로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여기에 올려놓고 뿐 만 아니라 도·시군 행정기관의 홈페이지에도 공개하여 장수마을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효과를 얻음.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지원의 확충

- 중앙 정부는 장수마을에 대한 지원을 적극 검토하고, 동시에 지방 정부는 「장수마을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 장수마을 보존 및 지원과 관련된 법을 조례 등으로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참 고 문 헌

- 고양숙(2002), “장수노인의 식생활 특성.” 「제주장수지역 이미지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제주도. pp. 127-161.
- 김진영(2002), “장수노인의 일상생활 활동수행능력.” 「제주장수지역 이미지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제주도. pp. 7-53.
- 김진영 외. (2002), 「장수형 노인복지기본계획 수립」 제주발전연구원.
- 김혜숙 (1999), 「제주도의 가족과 쉼당」 제주대학교출판부.
- _____ 1982), “부부간의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1).” 「대한가정학회지」 pp. 20-23.
- 세계일보. 2005년 8월 10일.
- 이창기(1991), “제주도의 제사분할.” 「한국의 사회와 역사-최재석교수 정년퇴임기념논총」 일지사.
- _____ (1995), “제주도 가족제도의 특성.” 「제주사회론」 신행철 외. 한울아카데미.
- 전경수(2002), “제주도 장수자의 노동경험과 노동윤리.” 「제주장수지역 이미지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제주도. pp. 165-186.
- 정광중(2002), “장수마을의 지리적 환경과 제조건.” 「제주장수지역 이미지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제주도. pp. 57-95.
- 제주도(2002), 「제주장수지역 이미지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 최재석(1979), 「제주도의 친족조직」 일지사.
- 통계청(2005), 홈페이지 <http://kosis.nso.go.kr>
- 통계청(2002), 「장래인구추계」
- 한창영(1997), 「노인학서설」 은누리 출판.
- 홈페이지 : 순창군 <http://www.sunchang.go.kr>
- Weber, W. (1995), Die Wirtschaftliche Bedeutung des Sports, *Schorndorf* 24-25.

□ 부 록 □

설 문 조 사 표

제주장수마을의 향후 발전 방향과 과제

설문조사표

--	--	--

안녕하십니까 ?

금번 저희 제주발전연구원에서는 제주장수마을의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사는 장수마을의 자연환경, 경제환경, 생활환경, 문화환경 등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여 장수마을의 발전과 보존에 필요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면접원이 귀하를 직접 찾아뵈어 간단한 사항들에 대하여 여쭙어 볼 것이오니 바쁘시더라도 성심껏 응답하여 주십시오. 귀하의 솔직한 응답은 향후 장수마을의 발전에 중요한 정책적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본 조사결과는 통계적으로 처리되어 개인적 신상내용은 밝혀지지 않으며, 응답내용의 비밀이 절대로 보장됩니다. 비록 바쁘시더라도 설문항목에 빠짐없이 응답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05. 12.

조사기관 : 제주발전연구원 사회조사센터

연구책임 : 고 승 한 박사 (Tel. 751-2166)

본 설문조사에 대한 의문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조사센터 최 영 근 연구원 (☎ 751-2166 ~7)

면접일자	면접원	조사지역
2005년 12월		

♣ 응답요령 : 해당 난에 √표 또는 ○표 하시면 됩니다♣

1. 귀하가 생각하기에 마을 주민들이 오래 사시는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사항을 순서대로 두 가지만 골라주십시오)

- | | |
|-----------------------|----------------------|
| ① 깨끗한 공기와 물 | ② 식생활 습관 (적게 먹는 습관) |
| ③ 제주산 청정 음식물 섭취 | ④ 마음이 편안한 생활 |
| ⑤ 늙어도 농사일에 참여해서 | ⑥ 집안내력 (유전적 요인) |
| ⑦ 마을이 덜 개발되어서 | ⑧ 마을 주민들과 화목한 공동체 생활 |
| ⑨ 기타 _____ (말씀해 주십시오) | |

제 1 순위 ()번

제 2 순위 ()번

2. 귀하는 마을 주민들이 어떤 음식을 먹어서 장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적절한 음식을 두 가지만 골라주십시오)

- | | |
|-----------------------------|--------------------------|
| ① 나물 (배추) 된장국 | ② 삶은 돼지고기 |
| ③ 싱싱한 해초류 (미역, 툇, 등) | ④ 싱싱한 해산물 (소라, 해삼, 전복 등) |
| ⑤ 꿩 고기 | ⑥ 말 고기 |
| ⑦ 싱싱한 야채 (콩잎, 배추, 깻잎, 마늘 등) | |
| ⑧ 동네 용천수 물 (약수 물) | |
| ⑨ 기타 _____ (말씀해 주십시오) | |

제 1 순위 ()번

제 2 순위 ()번

3. 귀하는 마을의 공기와 물이 10년 전 보다 어떻다고 보십니까?

- | | | |
|------------|------------|----------|
| ① 대단히 나빠졌다 | ② 약간 나빠졌다 | ③ 그저 그렇다 |
| ④ 약간 좋아졌다 | ⑤ 대단히 좋아졌다 | |

4. 귀하는 마을의 인심은 10년 전에 비하여 어떻다고 보십니까?

- | | | |
|------------|------------|----------|
| ① 대단히 나빠졌다 | ② 약간 나빠졌다 | ③ 그저 그렇다 |
| ④ 약간 좋아졌다 | ⑤ 대단히 좋아졌다 | |

5. 귀하의 마을은 옆 마을과 비교하여 경제적 형편이 어떠하십니까?

- ① 아주 못 사는 편이다 ② 대체로 못 사는 편이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대체로 잘 사는 편이다 ⑤ 아주 잘 사는 편이다

6. 귀하의 마을사람들은 경제적 소득을 주로 어디로부터 얻고 있습니까?

- ① 농업 ② 수산업 ③ 일반 직장 ④ 자영업 ⑤ 기타 _____

7. 귀하께서 마을의 경제적 여건 변화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① 70년대 이전

② 70년대

③ 80년대

④ 90년대 이후

8. 귀하가 생각하기로 마을이 경제적으로 발전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 ① 고소득 농작물을 재배한다
② 마을의 젊은 사람들이 도시로 떠나지 말아야 한다
③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여야 한다
④ 장수마을로 지정하여 관광지역으로 바꾼다
⑤ 마을에 공장이 들어서야 한다
⑥ 행정기관이 지역발전계획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⑦ 기타 _____ (적어 주십시오)

9. 귀하의 마을이 관광지로 개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없다 ② 대체로 없다 ③ 조금있다
④ 대단히 많다 ⑤ 모르겠다

10. 귀하의 마을에서는 웃어른에 대해 공경심이 어느 정도입니까?

- ① 전혀 공경하지 않는다 ② 대체로 공경하지 않는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대체로 공경한다 ⑤ 아주 공경한다

11. 귀하는 마을 노인들이 마을 일에 얼마나 참여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 ①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 ② 대체로 참여하지 않는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소극적으로 참여한다 ⑤ 대단히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12. 귀하의 마을에서 노인들은 마을의 전통과 역사를 계승하려는 노력은 어떠합니까?

- ① 전혀 노력하지 않는다 ② 대체로 노력하지 않는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조금 노력한다 ⑤ 대단히 노력한다

13. 귀하의 마을에는 장수노인들을 위한 특별한 행사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적어주십시오)

14. 귀하의 마을에는 장수에 관한 특별한 역사적 전설 혹은 신화가 있습니까?

- ① 예 (☞문항 15번으로 가세요) ② 아니오 (☞문항 16번으로 가세요)

15. 그렇다면 어떤 역사적 전설 혹은 신화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16. 귀하의 마을에는 어떤 문화적 시설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17. 귀하의 마을이 장수할 조건을 지녔다고 보십니까?

- ① 예 (☞문항 18번으로 가세요) ② 아니오 (☞문항 19번으로 가세요)

18. 그렇다면 장수할 조건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19. 귀하가 생각하기로 마을에서 장수하는 집안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예 (☞문항 20번으로 가세요) ② 아니오 (☞문항 21번으로 가세요)

20.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① 조상대대로 집안내력이다 ② 자식들이 잘 봉양한다
③ 집안이 화목하다 ④ 경제적으로 부유하다
⑤ 좋은 집터에 살고 있다 ⑥ 이웃과 잘 지낸다
⑦ 특별한 음식을 먹는다
⑧ 기타 _____ (적어 주십시오)

21. 귀하가 생각하기로 마을이 장수할 수 있는 여건들이 10년 전에 비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대단히 악화되었다 ② 약간 악화되었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약간 좋아졌다 ⑤ 대단히 좋아졌다

22. 귀하의 마을이 장수할 수 있는 여건이 나빠졌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① 자동차 매연으로 공기가 나빠짐 ② 동네 용천수 및 지하수 오염
③ 마을사람들의 인심이 나빠짐 ④ 마을의 전통적 생활방식이 사라짐
⑤ 각종 농약살포의 증가 ⑥ 마을 주민들의 인스턴트 식품의 구매
⑦ 기타 _____ (말씀해 주십시오)

23. 귀하는 마을의 어떤 변화가 마을사람들의 장수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적어주십시오)

24. 귀하는 장수마을이 보존되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예 (☞문항 25, 26, 27번으로 가세요) ② 아니오 (☞문항 28번으로 가세요)

25. 그렇다면 누가 장수마을을 보존해 나가는 주체여야 합니까?

- ① 도 행정기관 ② 시·군 행정기관 ③ 마을사람 스스로
④ 장수관련 연구소 ⑤ 노인복지기관 ⑥ 시민사회단체
⑦ 기타 _____ (말씀해 주십시오)

26. 귀하는 장수마을 보존을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사항을 골라주십시오)

- ① 마을 사람들이 의논한 결과에 따른다
② 행정기관이 중·장기 보존 계획을 수립하여 한다
③ 타 시·도 장수 마을을 본받아서 한다
④ 해외 장수 마을을 본받아서 한다
⑤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연구 조사한 결과에 따른다
⑥ 현재 있는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다
⑦ 기타 _____ (적어 주십시오)

27. 귀하는 장수마을을 보존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사항을 골라주십시오)

- ① 마을 사람들의 의지가 중요하다
② 행정기관의 예산지원이 중요하다
③ 장수마을에 대한 기초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④ 장수마을 지정이 시급하다
⑤ 장수마을의 훼손이 억제되어야 한다
⑥ 장수마을을 홍보해야 한다
⑦ 기타 _____ (적어주십시오)

28. 귀하는 현재 마을 노인들이 장수하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
 십니까? (가장 중요한 두 가지만 순서대로 골라주십시오)

- ① 노인 스스로 건강을 관리한다
- ② 행정기관이 노인들의 의료보험 혜택을 강화한다
- ③ 자녀가 나이 많은 부모를 직접 모신다
- ④ 장수노인에 대한 지원금을 대폭 인상한다
- ⑤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 ⑥ 장수노인 관련 법을 제정한다.
- ⑦ 마을에 장수노인들을 위한 특별시설을 갖춘다
- ⑧ 장수노인을 보호하고 관리할 가정복지사가 필요하다
- ⑨ 기타 _____ (적어주십시오)

제 1 순위 ()번

제 2 순위 ()번

29. 귀하는 장수노인들을 위해서 마을에 어떤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골라주십시오)

- ① 공중목욕탕 시설
- ② 냉·난방 시설이 잘 된 쉼터 시설
- ③ 운동을 할 수 있는 헬스시설
- ④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문화시설 (노래방 시설 등)
- ⑤ 노인들이 소일할 수 있는 공동작업장 시설
- ⑥ 보건센터 시설 (보건소 등)
- ⑦ 장기요양보호 시설
- ⑧ 기타 _____ (적어주십시오)

30. 귀하가 사는 마을이 장수마을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 ① 예 (☞문항 31번으로 가세요)
- ② 아니오 (☞문항 32번으로 가세요)

31. 귀하의 마을이 장수하는 마을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 ① 마을에 역사적 기록이 있기 때문에
- ② 마을사람들의 입소문으로 들어서
- ③ 동네에 오래 사는 사람이 많아서
- ④ 신문·방송에서 보도하니까
- ⑤ 잡지나 책에서 보아서
- ⑥ 기타 _____ (적어주십시오)

32. 귀하는 장수마을을 보존하는 접근이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겠습니까?

- ① 마을 중심으로
- ② 지역사회 중심으로
- ③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 ④ 중앙정부 중심으로
- ⑤ 언론 및 방송 여론에 따라서
- ⑥ 기타

33. 귀하는 장수마을을 보존하고 발전시키는데 중앙정부는 우선적으로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골라주십시오)

- ① 장수마을 관련 법을 제정한다 ② 장수마을을 지원하는 국비를 책정한다
- ③ 장수마을을 관광특구로 지정한다 ④ 장수마을발전기본계획을 세운다
- ⑤ 장수마을보존특별위원회를 만든다 ⑥ 기타 _____ (적어 주세요)

34. 귀하는 장수마을을 보존하고 발전시키는데 지방자치단체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사항을 순서대로 두 가지만 골라주십시오)

- ① 장수마을로 공식 지정 ② 마을 발전 기본계획 수립
- ③ 장수노인들을 위한 지원금 증액 ④ 가정복지사 파견
- ⑤ 장수노인 보호 조례 제정 ⑥ 장수노인들을 위한 복지시설 마련
- ⑦ 마을을 관광지역으로 만들
- ⑧ 기타 _____ (적어 주십시오)

제 1 순 위 () 번

제 2 순위 () 번

35. 귀하는 마을사람들 스스로 장수마을을 보존하고 발전시키려면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마을주민들의 협력 ② 마을에 보존위원회의 구성
- ③ 마을 지도자의 리더십 ④ 젊은이들의 관심과 노력
- ⑤ 지자체와의 협력관계 ⑥ 마을주민들의 선진사례 연수
- ⑦ 기타 _____ (적어 주십시오)

36. 귀하는 현재 살고 계신 지역은?

- ① 제주도 ② 서귀포시 ③ 북제주군 ④ 남제주군

37. 귀하는 학교를 어디까지 다녔습니까?

- ① 글자를 모른다 ② 한글을 겨우 안다
③ 초등학교 (중퇴 포함) ④ 중학교 (중퇴 포함)
⑤ 고등학교 (중퇴 포함) ⑥ 전문대학 (중퇴 포함)
⑦ 대학 (중퇴 포함) ⑧ 대학원 이상

38. 귀하의 월 평균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 ① 30만원 미만 ② 30만원 ~ 49만원 ③ 50만원 ~ 99만원
④ 100만원 ~ 149만원 ⑤ 150만원 ~ 199만원 ⑥ 200만원 ~ 249만원
⑦ 250만원 ~ 299만원 ⑧ 300만원 이상

39. 귀하의 성별은?

- ① 여성 ② 남성

40. 귀하의 연세는?

만 _____ 세

41. 귀하의 현재 직업은 무엇입니까?

- ① 농업 및 어업 ② 생산 및 기능직 (운전기사 포함)
③ 판매 및 서비스업 (자영업 포함) ④ 일반사무직종
⑤ 단순 노무직 ⑥ 전문·관리직종 (공무원 포함)
⑦ 기타 _____ (말씀해 주십시오)
⑧ 모든 일에서 은퇴

♣ 끝까지 응답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